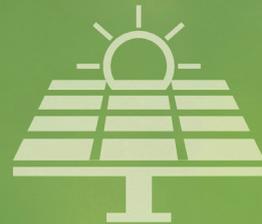


Samjong INSIGHT

Vol. 86·2023

삼성KPMG 경제연구원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Thought Leadership I
ESG 정보공시의 뉴패러다임

Thought Leadership II
ESG 정보공시 기업 대응 방안 및 로드맵

Contents

Vol. 86·2023 (통권 제86호)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xecutive Summary

Thought Leadership I

ESG 정보공시의 뉴패러다임

ESG 정보공시란 무엇인가?	02
ESG 정보공시의 변화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	04

Thought Leadership II

ESG 정보공시 기업 대응 방안 및 로드맵

ESG 정보공시의 미래	14
ESG 정보공시 대응 기업별 상황 진단	23
ESG 정보공시 대응 로드맵	25
공시 준비 Timeline 및 Key Milestone	30
ESG 정보공시 체계 성숙도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32
결언 및 시사점	42

Contact us

이효정 상무	hyojunglee@kr.kpmg.com	02-2112-6744
김규림 이사	gyulimkim@kr.kpmg.com	02-2112-4089
박도휘 수석연구원	dohwipark@kr.kpmg.com	02-2112-0904
김나래 수석연구원	nkim15@kr.kpmg.com	02-2112-7095
김수경 수석연구원	sookyungkim@kr.kpmg.com	02-2112-3973

본 보고서는 삼정KPMG와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글로벌 ESG 정보공시

ESG 정보공시의 글로벌 표준화·의무화로 ESG 공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며, ESG 공시를 위한 준비가 필수임



- ✓ 기업 공시정보 간 비교가능성 증대 및 공시 내용의 기업책임 강화

- ✓ 공시정보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감독 범위 확대 필요

- ✓ 공시정보 관련 내부 Data 관리·통제 프로세스 확립 필수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주요 요구사항

	IFRS® ISSB 1)	US SEC 2)	EFRAG 3)	KSSB 4)
E	기후 재무영향 공시 요구		기후, 오염, 수자원,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한국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2025년부터 ESG 정보공시 의무화 예정
S	미확정 (2023년 이후 순차적 법안 공개 예정)	미요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소비자	
G			기업 윤리	

1)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2) 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3) 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4) 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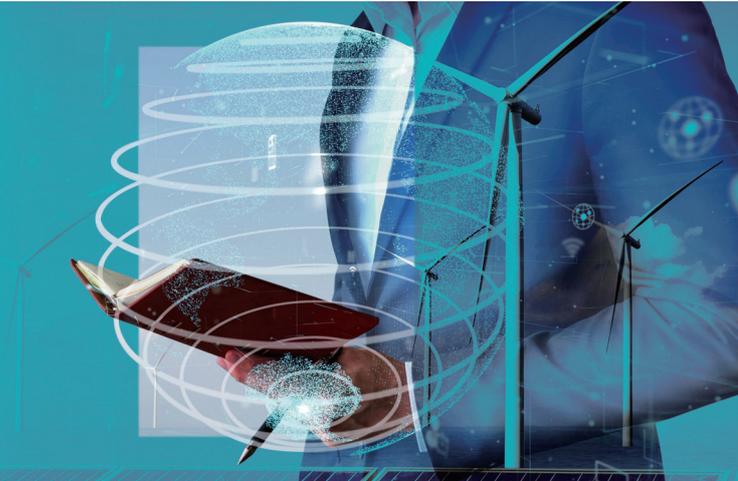
ESG 정보공시 방법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점에 ESG 정보공시를 요구함

	SEC	ISSB	EFRAG	
재무제표에 공시가 요구되는 항목이 있나요?	✓ ¹⁾	✗ (상호 참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는 재무적 영향, 지출 지표 및 재무적 추정치와 가정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상 주식에 공시 요구 ■ 외부감사 및 SOX(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
연차 보고서에 공시되어야 하나요? (사업보고서)	✓ ²⁾	✓ (공시 위치 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B가 한국에서 의무화 전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ESG 우수 기업들은 ISSB 공시기준 선도적으로 채택 예상 ■ 투자자 공시 요구 가속화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점에 공시되어야 하나요?	✓	✓ ³⁾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적 영향, 지출 지표 및 재무적 추정치와 가정을 주식 공시 2) 연차 보고서 내 별도 영역에 공시 혹은 MD&A(경영진단위견서)와 같은 영역 참조로 공시 3) 공시 시점 관련 논의 진행 중

Thought Leadership I

ESG 정보공시의 뉴패러다임



ESG 정보공시란 무엇인가?

“ ESG 경영은 ‘ESG 전략수립’과 ‘ESG 정보공시’를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하는 것 ”

ESG 정보공시의 개념과 뉴패러다임

최근 ESG 경영을 실행하는 기업이 급증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용어다. 특히 ESG가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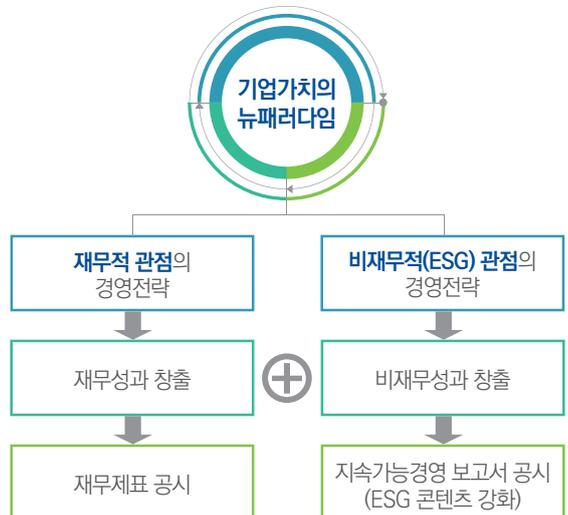
지난 몇 년간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와 정부, 고객 등은 기업에게 더 높은 수준의 ESG 경영을 요구해 왔다. 더불어, 그린 컨슈머(Green Consumer)와 같은 소비자의 행동변화, 공급망 관리에 대한 책임 확대, 규제 강화 등 기업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은 기존 재무적 성과 중심의 경영활동에서 벗어나 ESG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ESG 경영이란 ‘ESG 전략수립’과 ‘ESG 정보공시’를 통해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ESG 전략수립은 ESG 관점에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 실행 체계 등을 구축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 ESG의 개념과 기업가치의 뉴패러다임

ESG의 세부 요소

ESG의 세부 요소	
E Environmental 환경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 환경오염·환경규제 -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 에너지 효율 - 책임 있는 구매·조달 등
S Social 사회	- 고객만족 -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 인권, 성별 및 다양성 - 지역사회 관계 - 공급망 관리 - 근로자 안전 등
G Governance 지배구조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 뇌물 및 반부패 - 로비 및 정치 기부 - 기업윤리 - 컴플라이언스 - 공정경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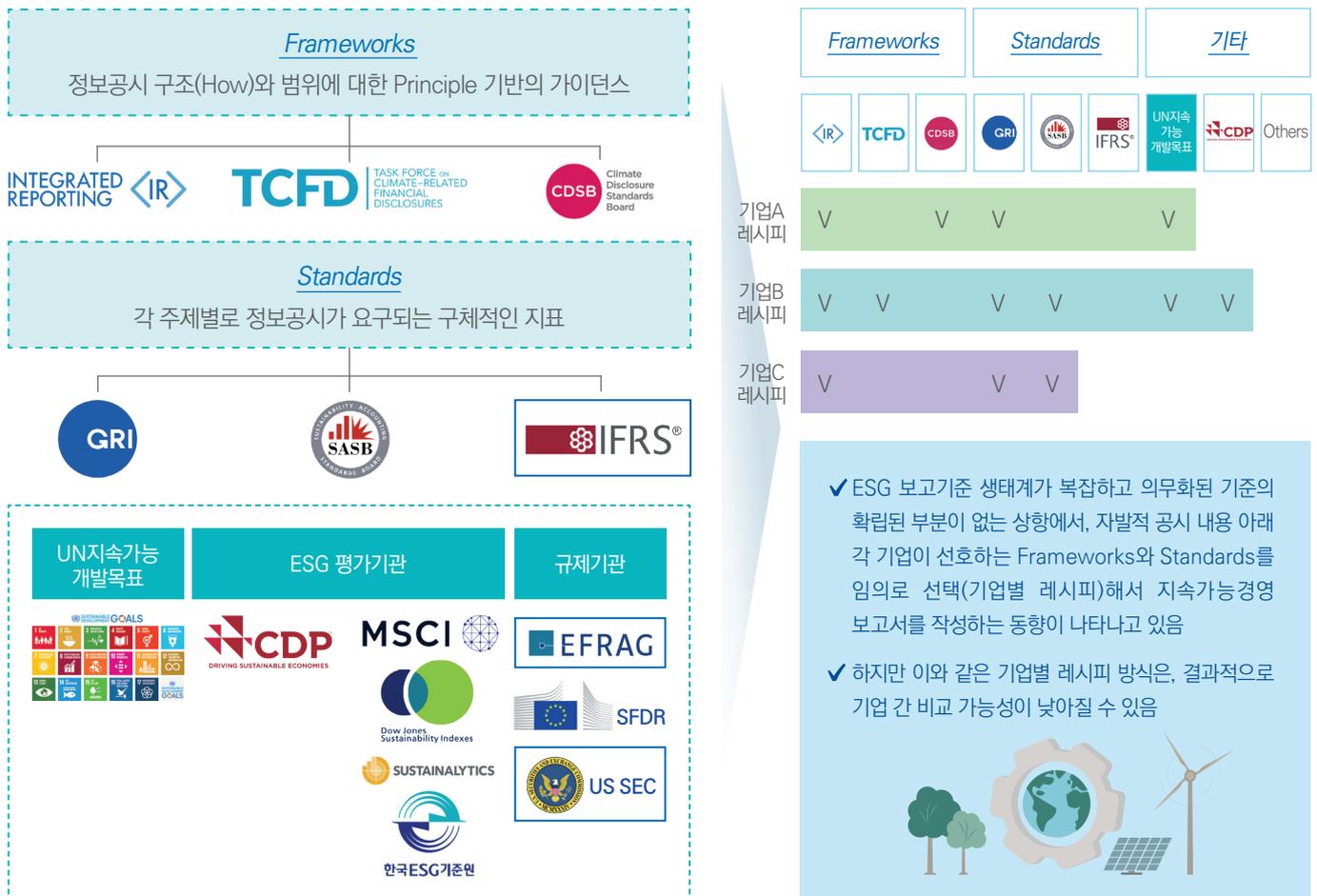


“ ‘ESG 정보공시’란 기업의 ESG 성과·정보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개념 ”

ESG 정보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ESG 성과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개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ESG 정보공시’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는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여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조직의 관행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의 성과를 측정 및 공개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약속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ESG 리스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해당 분석 결과와 대응 방안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반영하여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그 영향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할까? 기존 ESG 정보공시는 규제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보고기준이 부재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들은 각 기관별 다양한 기준을 구성하기 때문에 흔히 ‘Alphabet Soup(기호나 약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ESG 보고기준의 생태계가 복잡하게 조성되었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준들 중 기업이 선호하는 기준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기업 자신만의 ‘레시피(Recipe)’를 만들어 공시하였다.

» ESG 보고기준 생태계의 복잡성 및 기업 개별 단위 ESG 레시피(Recipe)



- ✓ ESG 보고기준 생태계가 복잡하고 의무화된 기준의 확립된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공시 내용 아래 각 기업이 선호하는 Frameworks와 Standards를 임의로 선택(기업별 레시피)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음
- ✓ 하지만 이와 같은 기업별 레시피 방식은, 결과적으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ESG 정보공시의 변화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

“ ESG 정보공시 중요 키워드 ‘의무화, 표준화, 연계성’ ”

최근 ESG 정보공시의 변화가 기업에게 더욱 중요하게 된 배경으로 ESG 개념의 모호성과 정보공시 채널의 한계성이 크게 지적된다. 먼저, ESG 개념이 가진 모호성의 경우, 서로 다른 목적과 관점을 가진 다양한 이니셔티브 및 기준 제정기관들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ESG 개념을 해석하고 여러 ESG 공시 요구사항을 제정하면서 복잡한 ESG 공시기준의 생태계가 조성되었다. 다양한 ESG 공시기준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되고 신뢰 가능한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의 ESG 정보공시 채널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로 제한되어 있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ESG 정보공시를 공시기준이 요구하는 고유의 목적 이외에도 외부 ESG 평가대응, UN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활동보고, 기업 ESG 활동 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더 많은 정보를 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ESG 정보공시에 대한 실무적인 혼란과 업무 가중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정보이용자에게는 ESG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ESG 정보공시의 주요 기준

	내용	규제 시점	의무화	중요성	공시 주체	제3자 검증
IFRS ISSB 글로벌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기준 (단계적 美 SASB 기준 흡수)	2023년 6월 확정, 국가별 적용	각 국가별 적용	재무적 (투자자 관점)	채택 국가 기업	각 국가별 정책
US SEC 미국	SEC 상장사 기후 정보공시	2023년 (or 2024년)	의무	재무적 (투자자 관점)	SEC 상장사	일부 의무
EFRAG ⁴⁾ EU 국가	Taxonomy ESRS ¹⁾ , SFDR ²⁾	2022년 2024년	의무	환경·사회 + 재무적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	EU 역내 대기업 & 해외 기업 ³⁾	의무
대한민국	ESG 정보공시 지배구조 보고서	2025년~ 2019년~	의무	재무적 (투자자 관점)	국내 기업 (자산 규모별 단계적)	단계적 의무화 예상



의무화



표준화



연계성

Source: 각 기관, 삼성KPMG

Note: 1)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지속가능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Taxonomy와 연계된 정보공시 요구) 이행에 사용되는 공시기준
2)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자산운용사 등 투자자 대상 포트폴리오의 ESG 현황 공시 제도), 3) EU에서 연 1.5억만 유로 매출을 창출하고 1개 이상의 자회사 또는 지사가 있는 경우, 4)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

ESG 정보공시 ‘의무화’ →
국가별 공시기준제정 포함ESG 정보공시 ‘표준화’ →
하나의 단일기준이 아닌
ESG 공시기준 상호 간
일치성 강조 ”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하던 ESG 공시기준의 생태계는 최근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일부 권위있는 정부기관과 국제재단에 의해 ESG 정보공시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뉴노멀 시대 ESG 정보공시의 중요한 키워드는 ‘의무화, 표준화, 연계성’이다.

뉴노멀 시대에 기업이 당면한 우선순위 과제는 규제기관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이다. 규제기관의 ‘의무화’는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별 공시기준이 제정 또는 채택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제화의 배경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된 공동의 목표 즉, 넷제로, 다양성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발적 이행 또는 규제화 중 공시 의무화라는 규제적인 측면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은 기존에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도록 선택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른 기후변화,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등 국가별 압박, 더딘 진행 속도 등으로 인해 공동의 목표 달성 가속화가 필요했다.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국가 또는 지역별로 자발적인 공시에서 규제를 통한 의무적인 공시로 빠르게 변화하게 되었다.



» 뉴노멀 시대의 3대 ESG 정보공시 기준 비교

구분	IFRS		SEC	ESRS
	ISSB S1 1)	ISSB S2 2)		
기후변화	●	●	●	●
환경오염(대기, 물, 토양)	●	●		●
수자원 및 해양자원	●			●
생물다양성	●	●		●
순환경제	●			●
에너지 관리	●	●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	●		
임직원(노사관계 및 인권)	●	●		●
협력사 및 공급망	●			●
지역사회	●			●
소비자 외 기타 사회적자본	●	●		●
사업 모형 및 혁신	●	●		
거버넌스	●	●		●

Note: 1) ISSB S1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제를 포괄한 세부 요구사항으로 관련 세부 주제가 단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임. 현재 논의된 다음 주제로는 생물다양성, 인적자본(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인권(노동권과 지역사회) 등이 고려됨

2) ISSB S2의 경우 산업기반 요구사항으로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를 채택하여 부분적으로 관련 기준이 요구됨(채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나 SASB 기준의 대부분이 고려될 것으로 보임)

“
 뉴노멀 시대를 주도하는
 3대 ESG 정보공시 기준 ...
 IFRS 재단의 ISSB
 공시기준, 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
 EFRAG의 ESRS에
 주목해야 ”

기업이 ESG 정보공시 뉴노멀 시대에 눈여겨 보아야 할 다른 사항은 바로 ‘표준화’이다. 이는 분산된 ESG 공시기준을 통합(Consolidation)하고 기준서 제정기관 간의 경쟁적인 구도에서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공시기준을 일치(Alignment)시키는 움직임을 말한다. 뉴노멀 시대 이전에도 ‘Alphabet Soup’과 같은 복잡한 ESG 공시 생태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 간의 통합 노력이 있었으나, 제정기관 간의 주도권 문제나 지향점의 차이 등으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최근 표준화는 단일기준을 추구하기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핵심 ESG 공시기준들 간의 특징점을 인정하고 긴밀한 협업하에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상호 호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키워드인 ‘연계성’은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 간의 상호연계성과 관련성을 강조하는 추세를 말한다. 최근 ESG의 시대적 요구를 투자자 집단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ESG 정보 공시의 성격 또한 기존 기업 경영활동이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환경, 사회가 재무적인 기업가치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활동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정보로 연계하는 공시가 요구되게 되었다.

이러한 ESG 정보공시 모멘텀의 변화로 ESG 공시 생태계는 간소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뉴노멀 시대를 견인하며 주목받고 있는 3대 ESG 정보공시 기준은 글로벌 기준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재단 산하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시기준, 국가별·지역별 기준으로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 유럽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의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가 있다. 각 ESG 공시기준들은 재무적 정보와의 상호 관계성을 강조하는 유사한 면을 보이나, 한편으로는 정보 이용자의 정의, 보고주제를 결정하는 중대성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ISSB에서의 재무적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의 의미...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 아닌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주안점 '재무정보공시' 키워드 부상”

(1) IFRS 재단의 ISSB 공시기준

IFRS 재단은 자본시장에서 사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노하우와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민간기관이다.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IFRS 재단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대한 글로벌 기준점(Global Baseline)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11월 COP26에서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관리위원회), UN 등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설립되었다. ISSB는 IFRS 재단 내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동등한 지위와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위원회이다.

ISSB는 설립 이후 기존의 주요 제정기관인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 SASB¹⁾, IIRC²⁾),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등과 물리적인 합병을 완료하였으며, TCFD(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TF),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등의 기준서와도 통합되었다.

ISSB는 2022년 3월에 IFRS S1, IFRS S2의 2개의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23년 6월에 확정된 가운데, 1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IFRS S1은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공시를 위한 일반원칙 등 일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IFRS S2 기후관련 공시사항은 TCFD 권고안의 4대 필러(Pillar)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IFRS S2에서는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재무영향분석, 기후 회복력에 대한 공시가 포함된다. 또한 7가지 산업전반에 관한 지표와 산업특정지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타 간접배출인 Scope 3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의무공시사항이다. 다만,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 적용 시 1년간 공시가 유예된다.

Note: *1)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2)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국제통합보고위원회)

ISSB 구성요소 및 S1, S2 특징



“ ESG 정보공시 뉴노멀 시대, Two Track(재무적+비재무적)이 통합되는 시점 직면 ”

ISSB 공시기준의 특징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단일 정보이용자로 특정하고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IFRS S1의 경우 기준서 명칭이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이 아닌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으로 함으로써 ‘보고’가 아닌 ‘재무정보공시’로 재무정보와의 관련성과 성격을 알 수 있으며, 보고채널도 재무정보의 일부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하는 시기도 원칙적으로 재무공시 시점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초 채택시점에서는 1년간 전환기간을 두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연차보고서 공시 후 다음 반기재무제표 공시시점(비상장기업은 9월까지)까지 공시하도록 정하였다.

ISSB의 공시기준의 목적과 적용범위, 핵심 요소 및 일반 요구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ESG 정보공시의 뉴노멀 시대는 기존의 투 트랙 형식이었던 기업 경영의 ‘재무적 트랙’과 ‘비재무적 트랙’이 통합되고 있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시기준 목적 및 적용범위, 핵심 요소

01	목적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에게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유의미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에 대한 정보를 제공													
02	적용범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적용													
03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93 1193 839 1339"> 핵심 요소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td> <td data-bbox="839 1193 1482 1339"> 04 일반 요구사항 보고기업·연계된 정보·공정한 표시·중요성·비교정보·보고빈도·정보위치·추정 불확실성·준수 문구 </td> </tr> <tr> <td data-bbox="193 1339 839 20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구조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감득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전략 유의미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해당 위험 및 기회가 전략 계획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전략의 핵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식별, 평가, 관리하는지와 이를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측정, 감득 및 관리 방법 이해, 기업 성과 평가 가능한 정보 </td> <td data-bbox="839 1339 1482 2047">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87 1375 1062 1576"> 보고기업 연결기준 일반목적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동일 </td> <td data-bbox="1078 1375 1254 1576"> 연계된 정보 재무제표와 연계 연계 방식 및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간 연계성 평가 </td> <td data-bbox="1286 1375 1461 1576"> 공정성 표시 충실한 표현 SASB, CDSB, 타 이니셔티브, 동료기업 공시 주제 고려 </td> </tr> <tr> <td data-bbox="887 1599 1062 1800"> 정보위치 재무보고의 일부 일반목적 재무보고 일부 상호 참조 허용 </td> <td data-bbox="1078 1599 1254 1800"> 비교정보 서술형도 비교 서술형 포함하여 모든 지표의 비교 정보공시 </td> <td data-bbox="1286 1599 1461 1800"> 보고빈도 동시보고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기간 동일 </td> </tr> <tr> <td data-bbox="887 1823 1062 2024"> 중요성 중요성 판단 누락, 잘못된 기재, 불분명한 경우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td> <td data-bbox="1078 1823 1254 2024"> 추정 불확실성 관련 요인 공시 유의적 추정 불확실성 지표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특성, 요인 공시 </td> <td data-bbox="1286 1823 1461 2024"> 준수 문구 모든 요구사항 모든 요구사항 준수 요구, 현지 법 규정 금지 시 미공시해도 준수 문구 허용 </td> </tr> </table> </td> </tr> </table>	핵심 요소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04 일반 요구사항 보고기업·연계된 정보·공정한 표시·중요성·비교정보·보고빈도·정보위치·추정 불확실성·준수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구조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감득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전략 유의미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해당 위험 및 기회가 전략 계획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전략의 핵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식별, 평가, 관리하는지와 이를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측정, 감득 및 관리 방법 이해, 기업 성과 평가 가능한 정보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87 1375 1062 1576"> 보고기업 연결기준 일반목적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동일 </td> <td data-bbox="1078 1375 1254 1576"> 연계된 정보 재무제표와 연계 연계 방식 및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간 연계성 평가 </td> <td data-bbox="1286 1375 1461 1576"> 공정성 표시 충실한 표현 SASB, CDSB, 타 이니셔티브, 동료기업 공시 주제 고려 </td> </tr> <tr> <td data-bbox="887 1599 1062 1800"> 정보위치 재무보고의 일부 일반목적 재무보고 일부 상호 참조 허용 </td> <td data-bbox="1078 1599 1254 1800"> 비교정보 서술형도 비교 서술형 포함하여 모든 지표의 비교 정보공시 </td> <td data-bbox="1286 1599 1461 1800"> 보고빈도 동시보고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기간 동일 </td> </tr> <tr> <td data-bbox="887 1823 1062 2024"> 중요성 중요성 판단 누락, 잘못된 기재, 불분명한 경우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td> <td data-bbox="1078 1823 1254 2024"> 추정 불확실성 관련 요인 공시 유의적 추정 불확실성 지표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특성, 요인 공시 </td> <td data-bbox="1286 1823 1461 2024"> 준수 문구 모든 요구사항 모든 요구사항 준수 요구, 현지 법 규정 금지 시 미공시해도 준수 문구 허용 </td> </tr> </table>	보고기업 연결기준 일반목적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동일	연계된 정보 재무제표와 연계 연계 방식 및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간 연계성 평가	공정성 표시 충실한 표현 SASB, CDSB, 타 이니셔티브, 동료기업 공시 주제 고려	정보위치 재무보고의 일부 일반목적 재무보고 일부 상호 참조 허용	비교정보 서술형도 비교 서술형 포함하여 모든 지표의 비교 정보공시	보고빈도 동시보고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기간 동일	중요성 중요성 판단 누락, 잘못된 기재, 불분명한 경우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추정 불확실성 관련 요인 공시 유의적 추정 불확실성 지표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특성, 요인 공시	준수 문구 모든 요구사항 모든 요구사항 준수 요구, 현지 법 규정 금지 시 미공시해도 준수 문구 허용
핵심 요소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04 일반 요구사항 보고기업·연계된 정보·공정한 표시·중요성·비교정보·보고빈도·정보위치·추정 불확실성·준수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구조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감득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전략 유의미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해당 위험 및 기회가 전략 계획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전략의 핵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식별, 평가, 관리하는지와 이를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측정, 감득 및 관리 방법 이해, 기업 성과 평가 가능한 정보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87 1375 1062 1576"> 보고기업 연결기준 일반목적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동일 </td> <td data-bbox="1078 1375 1254 1576"> 연계된 정보 재무제표와 연계 연계 방식 및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간 연계성 평가 </td> <td data-bbox="1286 1375 1461 1576"> 공정성 표시 충실한 표현 SASB, CDSB, 타 이니셔티브, 동료기업 공시 주제 고려 </td> </tr> <tr> <td data-bbox="887 1599 1062 1800"> 정보위치 재무보고의 일부 일반목적 재무보고 일부 상호 참조 허용 </td> <td data-bbox="1078 1599 1254 1800"> 비교정보 서술형도 비교 서술형 포함하여 모든 지표의 비교 정보공시 </td> <td data-bbox="1286 1599 1461 1800"> 보고빈도 동시보고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기간 동일 </td> </tr> <tr> <td data-bbox="887 1823 1062 2024"> 중요성 중요성 판단 누락, 잘못된 기재, 불분명한 경우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td> <td data-bbox="1078 1823 1254 2024"> 추정 불확실성 관련 요인 공시 유의적 추정 불확실성 지표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특성, 요인 공시 </td> <td data-bbox="1286 1823 1461 2024"> 준수 문구 모든 요구사항 모든 요구사항 준수 요구, 현지 법 규정 금지 시 미공시해도 준수 문구 허용 </td> </tr> </table>	보고기업 연결기준 일반목적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동일	연계된 정보 재무제표와 연계 연계 방식 및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간 연계성 평가	공정성 표시 충실한 표현 SASB, CDSB, 타 이니셔티브, 동료기업 공시 주제 고려	정보위치 재무보고의 일부 일반목적 재무보고 일부 상호 참조 허용	비교정보 서술형도 비교 서술형 포함하여 모든 지표의 비교 정보공시	보고빈도 동시보고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기간 동일	중요성 중요성 판단 누락, 잘못된 기재, 불분명한 경우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추정 불확실성 관련 요인 공시 유의적 추정 불확실성 지표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특성, 요인 공시	준수 문구 모든 요구사항 모든 요구사항 준수 요구, 현지 법 규정 금지 시 미공시해도 준수 문구 허용				
보고기업 연결기준 일반목적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동일	연계된 정보 재무제표와 연계 연계 방식 및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간 연계성 평가	공정성 표시 충실한 표현 SASB, CDSB, 타 이니셔티브, 동료기업 공시 주제 고려												
정보위치 재무보고의 일부 일반목적 재무보고 일부 상호 참조 허용	비교정보 서술형도 비교 서술형 포함하여 모든 지표의 비교 정보공시	보고빈도 동시보고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기간 동일												
중요성 중요성 판단 누락, 잘못된 기재, 불분명한 경우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추정 불확실성 관련 요인 공시 유의적 추정 불확실성 지표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특성, 요인 공시	준수 문구 모든 요구사항 모든 요구사항 준수 요구, 현지 법 규정 금지 시 미공시해도 준수 문구 허용												

IFRS 재단은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나 IFRS 재단의 적법절차 (Due Process)로 인해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공시기준이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발표되지 않은 기후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 IFRS 재단은 IFRS S1과 SASB기준을 준용할 것을 권장하며, ESRS나 GRI와 같은 타 기준서들을 참고하도록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ISSB의 공시기준은 빌딩블록(Building Block) 접근법을 차용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점'만을 제시하며(Block1), 해당 공시기준이 국가별로 도입될 때에는 Block1을 준수한다면 개별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 또는 자본시장·기업의 필요에 따라 요구사항을 추가 (Block2)할 수 있다.

(2)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기후법안

“ 미국 SEC 기후법안 특징, Scope 3가 언급되고 있음 ... Scope 3 적용이 된다는 것이며 의무사항은 아님 ”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2022년 3월에 미국 내 상장된 기업들에게 표준화된 기후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적용시기는 미정이다. ISSB 공시기준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를 정보 이용자로 특정하고 기업에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당 법안은 TCFD의 권고안을 기초로 고안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에 대한 일반공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무제표 영향분석, 적용방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타 공시기준들과는 달리 SEC 기후법안에는 선택적·가정적 공시항목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전환계획이나 시나리오 분석은 해당되는 경우 공시하며, 기업에게 Scope 3는 중요하거나 지표·목표에 포함된 경우에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기후관련 '기회'인 경우는 선택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SEC 기후공시 법안의 특징 및 구성 요소

Regulation S-K: 통합공시 요구사항		1. 일반 공시		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Item 1500 – 1503, 1506	일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정의 • 기후 관련 지배구조 • 기후 관련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 • 기후 관련 위험관리 •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 • 물리적 위험 및 전환위험의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 • 목표와 이행 계획 • 시나리오 분석(필요 시) • 탄소상계관련 정보(필요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e 1 & 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및 제한적 또는 합리적 수준의 외부검증(단계적) • 중요하거나 명시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한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 공시 	
Item 1504 – 1505					
Item 1507					
Regulation S-X: 재무제표 형태/요구사항		3. 재무제표 영향공시		4. 적용 방식	
Article 14-01	재무제표 영향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적 영향지표 • 지출지표 • 재무적 추정치와 가정 • 재무제표감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내부통제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된 국내 및 해외기업 • 등록서류(Form 20-F 등) • 정기보고서(연차, 분기, 수시) • Scope 3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적용 또는 적용 가능 • 소규모기업은 공시 면제 • FY23부터 단계적 이행 (1년 유예 가능) 		
Article 14-02					
• 기후 관련 지표					

“ SEC 기후법안은 기업이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ISSB 공시기준에서 GHG 프로토콜에 따라 산정하도록 특정한 점과 차이 ”

미국 SEC의 일반공시는 기존의 TCFD 권고안과 유사하게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에 대해 더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공시까지 요구하고 있다. 가령, 이사회 구성원의 경우 이사회의 전문성, 경험 등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어 정보의 투명성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1, 2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Scope 3는 앞서 설명한 대로 중요성에 따라 공시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SEC 기후법안은 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GHG(Greenhouse Gas) 프로토콜에 따라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ISSB 공시기준과 차이를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Scope 1, 2는 제3자를 통한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10-K(외국기업은 20-F)에 Filing되어야 한다.



» SEC 기후법안의 재무제표 영향 예시

① 재무적 영향지표

기후 관련 사건 및 전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공시

- 각 Line-item별 기후 관련 부정적·긍정적 영향에 대해 공시

단위: \$	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	
	부정적 영향 총계	긍정적 영향 총계	부정적 영향 총계	긍정적 영향 총계
이자수익	XXX	XXX	XXX	XXX
대손충당금	XXX	XXX	XXX	XXX
투자금융 수익	XXX	각각을 수치로 환산		XXX
손상차손	XXX	XXX	XXX	XXX
고정자산	XXX	XXX	XXX	XXX

기후 관련 사건 및 전환 활동이 미치는 영향 공시

항목	연결재무 제표 금액	Event A, B 영향	전환 활동 D 영향	영향 절대값	비율
신용 원가	\$10,000	-\$300	+\$90	\$390	3.9%

② 지출 지표

물리적 및 전환 리스크별 별도 공시

- 자본적 지출과 비용적 지출을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로 나누어 별도 공시

단위: \$	물리적 리스크 발생 비용	전환 리스크 발생 비용
자본적 지출	XXX	XXX
비용적 지출	XXX	XXX

수치로 환산

- 자본적·비용적 지출 범주 내에서, 기후 관련 사건과 전환 활동을 합산하여 비율 계산

지출 카테고리	연결재무 제표금액	Event D	Activity E	비율
자본적 지출총계	\$8,000	\$200	\$100	3.75%
비용적 지출총계	\$3,000		\$25	0.83%

-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의 총합계가 관련된 사건 및 전환 활동 합계의 1% 이상인 경우 공시 필요

공시 불필요

③ 재무적 추정 및 가정

재무적 추정 및 가정 방법에 대한 기술

- 특정 자산의 추정 잔존가치, 추정 손실 우발 상황, 추정된 신용 리스크, 특정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등
- 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추정과 가정을 기후 관련 사건 및 전환 활동의 영향에 대한 재무적 추정 시 일관되게 사용할 것

심각한 기상 이벤트 등 기후 관련 리스크 예시

- 홍수
- 산불
- 가뭄
- 해수면 상승
- 극심한 더위
- 정부 규제
- 배출량 감소 정책

“ 미국 SEC 기후법안의 가장 특징적인 점 ...
공시지표 중 온실가스 배출량 외 재무제표 영향공시를 요구 ”

SEC 기후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무제표 영향공시는 재무적 영향지표, 지출지표, 재무적 추정 및 가정으로 구성된다. 기후위험과 기회에 대해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측정하고 관련 지출이 기후관련 사건과 전환활동 합계의 1% 이상일 경우 해당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SOX)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SEC 기후법안에 따른 재무제표 영향 공시는 SEC 상장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및 SOX의 외부감사 범위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기업 들은 신중하게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정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SEC 기후법안의 적용방식은 대상기업, 적용시기, 보고채널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 중 Scope 3는 기업들의 실무적 산출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이프하버 조항(Safe Harbor Rule)을 두었다.



» SEC 기후법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공시 요구사항

주요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 요구사항

Scope 1, 2

- 기업의 운영 및 조직 경계에 포함된 모든 배출원을 고려하여 공시
-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계산에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도 공시

Scope 3

- 기업의 Scope 3 배출량이 중요하거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한 경우 공시 필요
- SEC는 중요성을 결정하는 정량적 기준 미제시

Scope 1, 2 & 3 배출량 공시(예시)

각 Scope별 배출량에 대해 7대 온실가스를 각각 구분하여 공시	Scope 1		Scope 2		Scope 3	
	Category	Category	Category	Category	Category	Category
CO ₂						
CH ₄						
N ₂ O						
NF ₃						
HFC						
PFC						
SF ₆						
Totals	XX	XX	XX	XX	XX	XX
Total Scope 3:					XX	
Intensity						
Per \$ revenue	YY (revenue)		YY (revenue)		YY (revenue)	
Per unit of production	YY (production)		YY (production)		YY (production)	

- 구매 또는 생산을 통한 상쇄가치를 제외한 배출량 총계 기준으로 공시
- 집약도 기준의 공시도 필요함(Scope 3도 해당)
※ 온실가스집약도: 경제적 가치 혹은 생산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금융배출량 금융사의 Scope 3 공시 정보에는 금융사가 채권,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의 배출량을 포함

Scope 3
공시 부담 완화 조항

- ① 1년 공시 유예(Scope 1, 2 최초 공시 후, 1년 이후부터 공시)
- ② 제3자 인증 대상에서 제외
- ③ 세이프하버 적용(증권법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 완화)
- ④ 추정치 공시 인정(3분기까지의 데이터로 추정된 연간배출량 공시 허용. 단, 실제 배출량과 중요한 차이 발생 시 즉시 공시)

(3)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의 ESRS(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

“ 한국 최종 모회사는 2028년부터 공시 의무화 ... EU권에 자회사가 영업을 하거나 Non-EU권 모회사인 경우, 2년 연속 EU 내 전체기준 순매출액이 1.5억 유로인 경우 ”

ESRS(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는 EU(유럽연합)가 2050년까지의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발효된 CSRD(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의 일환으로서 유럽위원회의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가 제정하여 2024년 11월부터의 적용되는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말한다.

ESRS 공시기준은 2개의 공통기준과 환경(5개), 사회(4개), 거버넌스(1개) 관련 10개의 주제 등 총 12개 기준서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포괄적인 공시기준이다. 해당 공시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① 2년 연속 순매출 0.4억 유로 초과, ② 자산 0.2억 유로 초과, ③ 종업원수 250명 초과 중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현재 유럽 내에서만 약 50,000개 기업이 해당될 만큼 적용 범위가 넓다. 국내 기업은 EU 내 자회사가 영업을 하거나, Non-EU에 모회사가 소재한 경우라도 2년 연속 EU 내 전체 기준 순매출액이 1.5억 유로 초과인 경우 적용되어, 모회사가 국내에 소개한 경우도 2028년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받을 수 있다.

ESRS의 특징 및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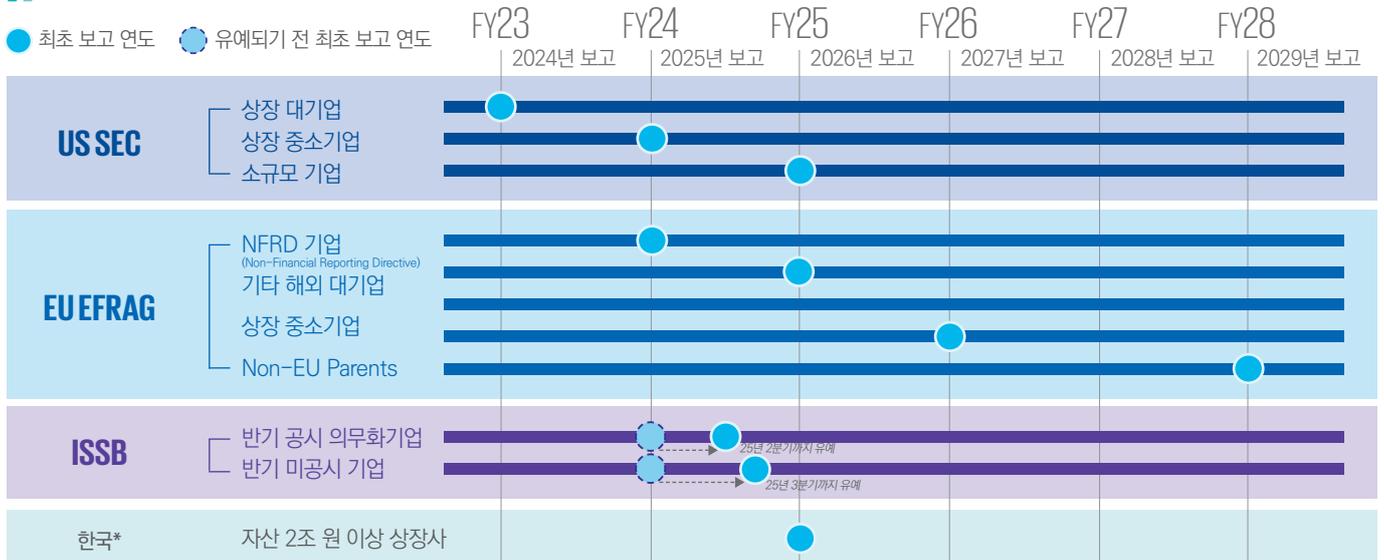
2개의 Cross-cutting Standards	10개 Topic-specific Standards		
	E	S	G
ESRS 1 일반 원칙	ESRS E1 기후변화	ESRS S1 자체 임직원	ESRS G1 비즈니스 수행
ESRS 2 일반 공시사항	ESRS E2 환경오염	ESRS S2 협력사·공급망 임직원	
	ESRS E3 수자원	ESRS S3 지역사회	
	ESRS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S4 소비자·이용자	
	ESRS E5 자원사용 및 순환 경제		



Source: EFRAG, 삼정KPMG

Note: 다음 3개 중 2개 해당 시 적용. 종업원수 250명 초과,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총자산 2,000만 유로 초과 조건 중 2개 이상 만족

ESG 공시 의무화 시기



Source: 각 기관, 삼정KPMG

Note: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2025년부터, 그 외 KOSPI 상장사 등은 2030년도부터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일정은 미정(KSSB의 결정에 따름)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Thought Leadership II

ESG 정보공시 기업 대응 방안 및 로드맵



ESG 정보공시의 미래

ESG 정보공시 뉴노멀, 기업의 도전과제와 대응 방안

ESG 정보공시는 국가별 공시 의무화, 공시기준의 글로벌 표준화, 비즈니스 중심의 공시요구,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엄격하고 체계화된 보고과정을 가진 재무공시와 함께 기업보고의 중대한 한 축으로서 ESG 정보공시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뉴노멀 시대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 현재 많은 기업들은 ESG 정보공시 특화 프로세스 부재로 인해 일회성으로 업무 대응을 하거나, 데이터 분산 관리로 매번 수작업 의존, 공시 거버넌스 부재로 인해 조직 내 일관성 결여, 비즈니스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해 형식적인 ESG 정보공시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 뉴노멀 시대로의 이행에 있어 많은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 기업이 직면한 ESG 정보공시의 페인포인트(Pain Point)

전사적인 구성원

“ESG 보고는 회사의 또 다른 일회성 캠페인일 뿐 나의 업무와는 무관해”

ESG부서

“공식화된 ESG 보고 프로세스와 부서별 R&R이 없으니 현업부서는 ESG 업무에 무관심하고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현업부서

“이번에 ESG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는데 회사 내 ESG 정책서가 없네?!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전년도 엑셀에다 그대로 수작업해서 주자.”

IT부서

“ESG 데이터 요청이 많은데 이제 감당이 안 되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결될텐데...”

경영진

“ESG 공시는 보고를 위한 정보이니 비즈니스는 관련이 없을텐데... 굳이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하나?”

감사위원회

“ESG 공시가 의무화 된다는데 우리 회사는 재무보고와 같은 공시 거버넌스와 프로세스 건전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나?”

“
기업들은 비즈니스 단절,
프로세스 부재, 데이터분산
및 시스템 부재, 불명확한
거버넌스 체계의
도전과제에 직면 ”

ESG 정보공시의 도전과제로 먼저 비즈니스와 ESG 공시정보와의 단절을 들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ESG 공시는 보고차원에서 제공되는 정보일 뿐 ESG 전략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고 있어 ESG 공시항목들이 실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형식적일 뿐이라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특히, 기후관련 재무영향 분석은 공시를 위한 노력일 뿐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재무정보와 함께 연계하여 비즈니스에 내재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또 다른 도전과제로는 공식화된 ESG 공시 프로세스 부재와 전사적인 무관심이다. ESG 공시와 비즈니스 간에 단절에 대한 인식은 재무공시와 같은 엄격한 ESG 공시 프로세스 구축의 필요성이 낮아져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부재하게 되었고, ESG 공시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전사적인 무관심 속에 복잡한 조직구조 내 업무중복, 불명확한 책임 등의 도전과제를 초래하고 있다.

ESG 공시가 수작업에 의존하는 이벤트성의 일회성 업무로 진행되어 조직 내외로 데이터가 분산되고 명확한 시스템이 부재하게 된 것도 도전과제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ESG 데이터 및 보고활동에 대한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비효율적인 수작업으로 적시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생성능력이 제한되고 있다.

ESG 정보공시의 도전과제로 불명확한 공시 거버넌스와 정책 또한 꼽을 수 있다. 조직 내에 공시 거버넌스, 위험 및 문서화된 ESG 공시정책 부재로 ESG 공시에 업무 중복, 위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통제절차가 부재하게 되어 ESG 공시내용의 투명성, 정보생성과정에 대해 확신이 없는 면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 작성한 ESG 공시항목에 대해 그 활동 자체에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ESG 정보공시의 도전과제

01

프로세스 부재

“과거 ESG 보고는 비공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문서화된 프로세스 및 통제를 포함하여 재무 정보와 동일한 엄격함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 보고 기준에 대한 일관된 정의 적용 부족
- 프로세스 표준화 부족으로 인해 노력이 중복되고 복잡성이 증가
- 복잡한 조직 구조로 인해 여러 부문에서 중복 및 불명확한 책임 존재

02

데이터분산 및 시스템 부재

“조직 내외로 분산된 ESG 데이터에 대해 투명성 부재 및 수작업에 의존하는 이벤트성 일회성 업무”

- ESG 데이터 및 보고 활동에 대한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및 비교가능성 저하
-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 기술 환경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수작업으로 적시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생성 능력이 제한
- 현 시스템 환경은 전사적인 위험 및 통제 문제를 야기

03

공시 거버넌스 및 정책

“ESG 공시는 ESG 경영전략만 있으면 보고 거버넌스 수립은 중복일 뿐이다.”

- 조직의 거버넌스, 위험 및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전략에 맞추는 접근방식이 필요
- 엔드 투 엔드(E2E) 프로세스 소유권 부족으로 지속적인 개선 가능성 제한
- 부분적 기술 한계로 인한 통제 문제로 위험이 증가하고 효율적인 보고가 제한됨

04

비즈니스에 고려

“ESG 공시는 보고차원에서의 정보일 뿐 ESG 공시항목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형식적일 뿐이다.”

- ESG 전략과 ESG 공시는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ESG 전략 내 수행된 비즈니스와 ESG 공시를 위한 항목 간에 연계성 저하
- 기후로 인한 재무영향 분석에 대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되지 않으며 산출된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신뢰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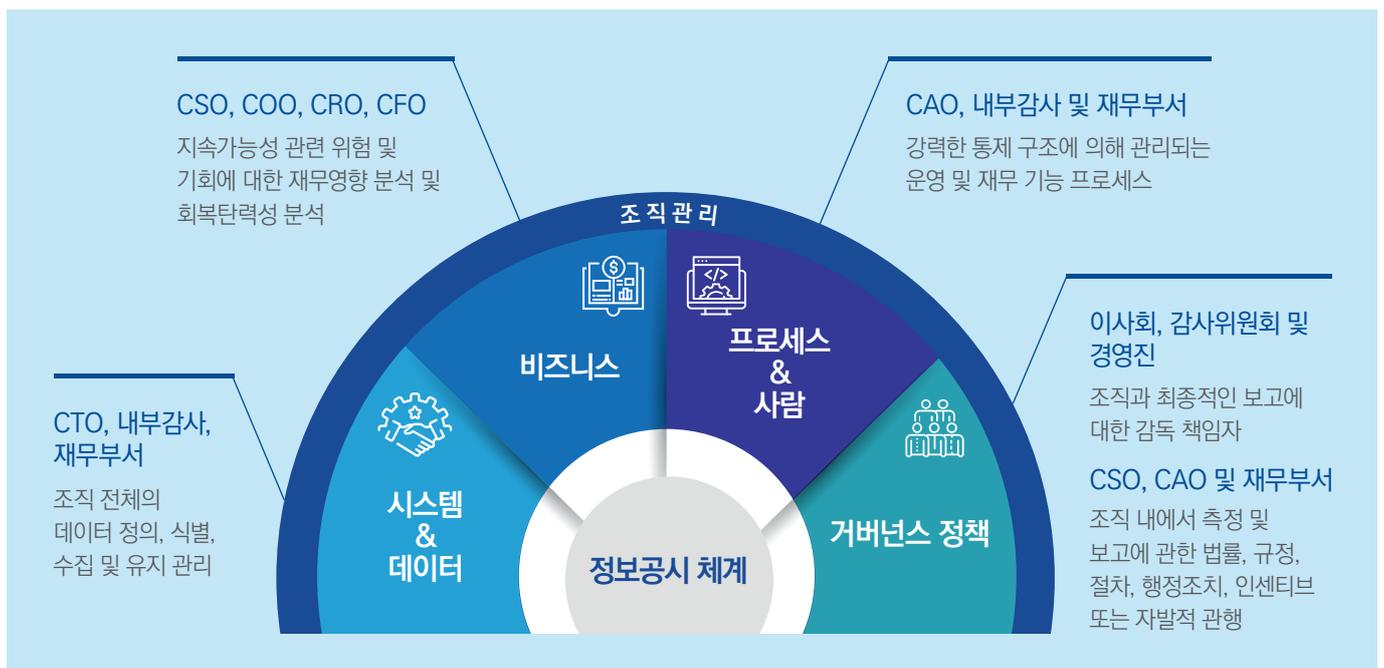
“ 전사적인 차원에서 ESG 목표운용 모델을 설계하고 현재 재무보고 체계와 유사한 수준의 ESG 정보공시 체계 구축 ”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고 뉴노멀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기업은 특정 부서의 주도하에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현행의 형식적인 공시관행을 벗어나 경영진의 주도하에 재무공시 체계와 유사한 ESG 정보공시 체계를 수립하고 공식화하여야 한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ESG 정보에 대한 기대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용되는 ESG 지표 및 공시기준의 범위는 광범위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ESG 보고서에 ESG 목표와 비즈니스, ESG 공시 항목들 간의 관계와 ESG 성과를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야 하며, 이는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ESG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기업 내부에 일상화(Business as usual)되어 있어야만 달성 가능하다.

이러한 ESG 정보공시 체계는 특정 분야가 아닌 ‘비즈니스, 프로세스&사람, 시스템&데이터, 거버넌스&정책’의 전사적인 차원에서 ESG 목표운용 모델이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은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ESG 정보공시 체계 구축에는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워크숍 형태 등의 어웨어니스 프로그램(Awareness Program)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ESG 공시업무가 부서별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 이용자가 ESG 정보를 의사결정 과정 및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가운데, 공시오류 등이 발생하면 기업에게 법적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ESG 정보공시가 재무보고와 같은 중요한 ‘기업보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전사적으로 인지해야 한다.



» ESG 정보공시 체계 목표운영 모델



Source: 삼정KPMG

Note: C-Level 약어는 다음과 같음. CTO(Chief Technology Officer), 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OO(Chief Operating Officer), CRO(Chief Risk Officer), CFO(Chief Financial Officer), CAO(Chief Administrative Officer)

“ 최근의 공시기준은 이론중심 콘텐츠에서 업무중심의 ESG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사적인 ESG 위험관리’에 초점 ”

(1) 비즈니스 측면의 콘텐츠 생산

새로운 공시기준의 특징적인 부분은 과거 이론중심의 콘텐츠에서 업무중심의 실질적인 ESG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사적인 ESG 위험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존에 수립한 ESG 목표와 전략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위험관리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ESG 성과 결과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일관성있게 연계하고 구체화하여 공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목표와 이행전략을 위해 기업은 탄소저감을 위한 상품개발 단위까지 정교화하는 비즈니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대시보드 구축 및 KPI 설정을 통해 ESG 성과를 측정하여 공시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또한, 재무지표와 더불어 시장 및 제품 전략 내에 ESG 지표를 전사적인 비즈니스 내에 내재화하고 ESG 지표를 주요 예측 및 계획 활동에 포함시키거나 주요 ESG 지표를 임원 보수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내부 보고를 시행할 수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 ESG 경영의 두 개의 축인 ESG 전략과 ESG 공시 간에 단절된 관계를 극복하고 ESG 정보공시 사항들이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재무정보와 같은 신뢰성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정교화된 방법론의 개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비즈니스의 재무영향분석을 위해 기후 시나리오 모델링 방법론과 접근 방식을 개선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정교한 방법론 및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ESG 공시를 위한 중요성의 개념도 ESG 목표와 원칙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은 기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방향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다.

» ESG 정보공시 체계 구축 방향성



Source: 삼정KPMG

Note: *TOM은 Target Operating Model을 의미함

(2) 프로세스 및 사람

“ ESG 공시 프로세스 첫 단계 ··· 규제사항 및 공시기준 식별, 중대성 평가, ESG 데이터 수집, 부서별 ESG 지표생성 및 검증 ”

국내의 다수 기업이 ESG 공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로, ESG 공시에 대한 전사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과 ESG 정보생성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명확한 부서별·그룹사별 역할 분담이 부족한 측면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타 부서 참여도가 소극적임에 따라 ESG 부서 주도하에 이뤄지거나 아웃소싱 방식 혹은 이벤트성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ESG 정보공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ESG 정보생성 전 과정에서 ESG 공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각 부서별 R&R을 정립하여 CFO 등 임원 책임 하에 ESG 공시 조직이 집중화 또는 분산화될 수 있도록 일련의 프로세스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서 우선 기업들은 ESG 보고과정에 필요한 규제사항 및 공시기준 식별, 중대성 평가, ESG 데이터 수집, 부서별 ESG 지표생성 및 검증 등 ‘ESG 공시업무 분류체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 ESG 업무단위별로 업무 흐름을 식별하고 각 업무를 담당할 역할을 정의 후 각 부서의 기능별로 새로운 역할 또는 기존 업무를 매핑하여 R&R을 정립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이미 검증된 재무공시 프로세스와 레버리지를 통해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ESG 공시에는 기존 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배경을 가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ESG 공시성숙도에 따라 책임있는 집중화된 업무를 위해 계열사 간에 분산된 업무와 기능에 대한 통합화에 대한 고려 또한 프로세스 체계 수립에 중요한 요소이다.

» ESG 공시체계 표준 공시업무 분류체계 예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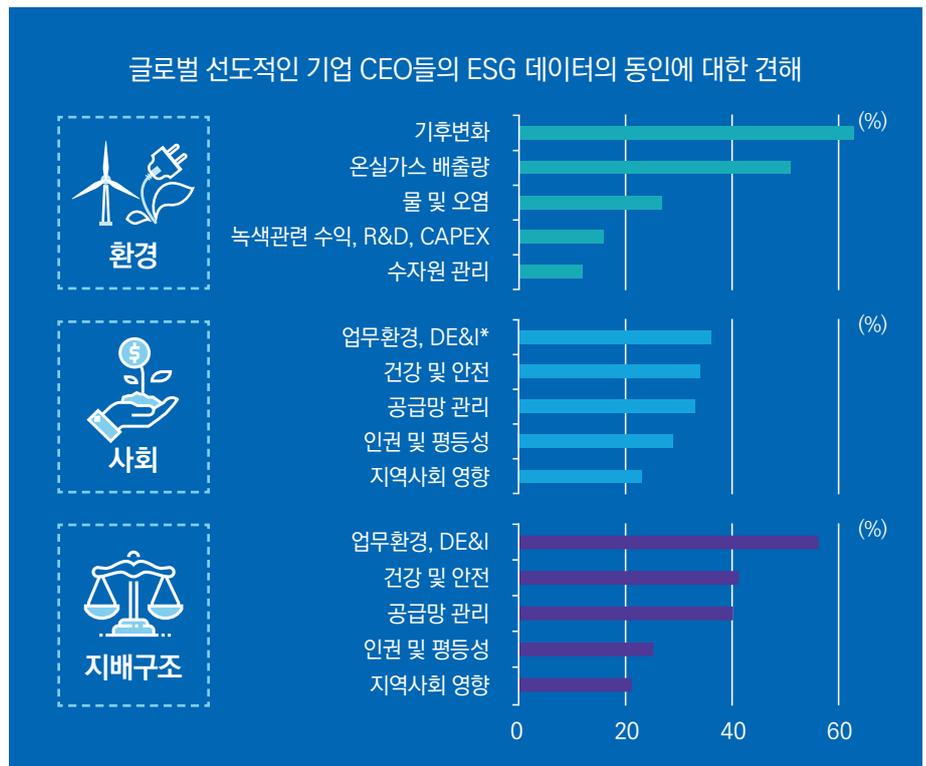
지속가능보고서 작성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흐름별 활동체계 정의

측정		수집	보고	프로세스 거버넌스	
보고방식 수립	설계·데이터 & 보고프로세스 업데이트	수집	보고	프로세스관리	시스템 거버넌스
ESG 규제 요구사항 영향 식별	ESG 데이터 인벤토리	시스템에서 ESG 데이터 수집 및 작성	ESG 성과 모니터링	ESG 정책, 절차 및 템플릿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및 마스터 데이터유지
관련 ESG 보고체계 및 기준 식별	ESG 데이터수집 프로세스 설계 및 업데이트	완전성과 정확성을 위한 데이터 검증	외부 ESG 보고서 작성	내부통제 관리	애플리케이션 구성 및 보안유지
ESG 보고전략 및 책임 Alignment	지표 산출 프로세스 설계·업데이트	수집된 데이터로 부터 지표 계산	공시 및 규제 보고서 준비	서비스조직 입력관리	애플리케이션 배포 및 업그레이드 관리
ESG 보고전략에 대한 중대한 주제 및 지표 확인	ESG 보고주기 설계·업데이트	완전성과 정확성을 위한 지표계산 검증	이해관계자 보고서 준비 및 IR관리	보고프로세스 효율성 및 효과성 관리	보고서 유지
인증 요구사항과 접근방식 확인	Owner와 R&R 확인		보고서 제출 및 피드백수집	이슈식별, 모니터링 및 해결	인터페이스관리
지표 우선순위화	위험,데이터, 통제 및 갭차이 평가			성과검토 및 ESG 관련 위험 조정	프로세스 자동화 및 디지털 노동 관리
전반적인 보고 계획수립 및 승인	갭차이 해소			기록 보관 및 유지	

(3) 시스템과 데이터

ESG 공시기준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ESG 데이터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빠른 정보생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현재 기업들은 비표준화된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계하여 관리함에 있어 체계화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스템 도입에도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는 듯하다.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ESG 데이터 Top 5



의 CEO들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의 재가입**은 보다 엄격한 ESG 관행을 갖도록 할 것으로 예상



의 CEO는 팬데믹에 대응하여 ESG 프로그램의 **사회적 요소로 초점이 이동**할 것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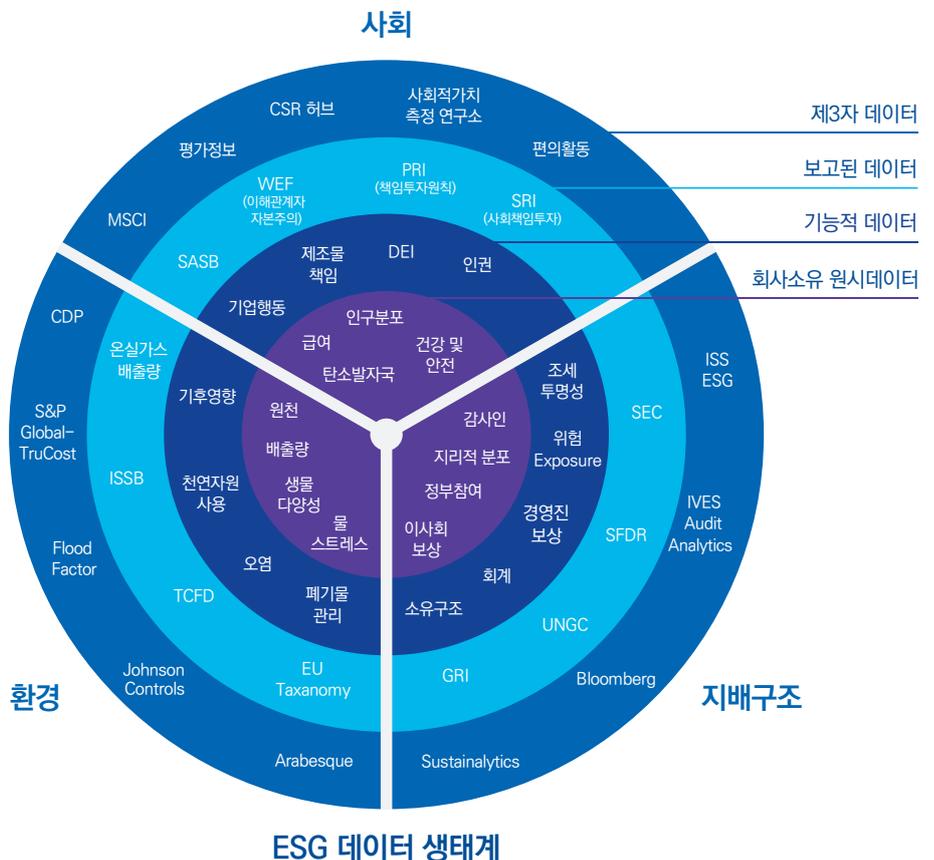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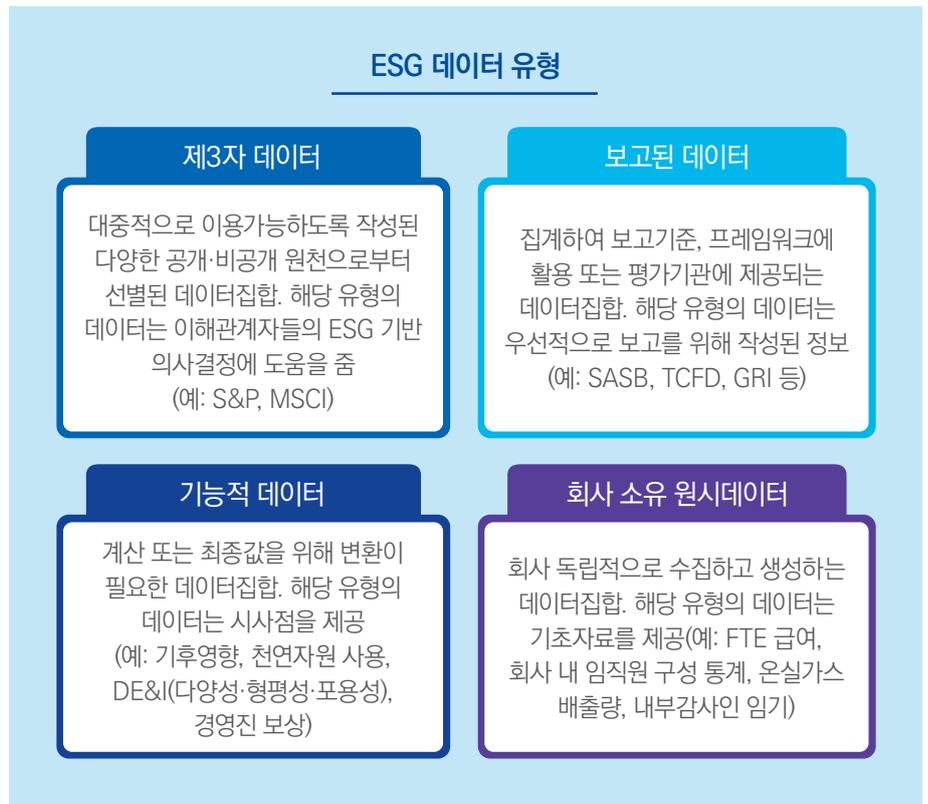


의 CEO는 **조직의 다양성 성과에 대한 조사**가 향후 3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Source: KPMG LLP(US), "2021 KPMG US ESG Practitioner Community Survey"(2021.04) and KPMG LLP(US), "2021 KPMG US CEO Outlook Pulse Survey"(2021.03)

Note: *DE&I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의미함

» ESG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흐름에 따른 시스템 영향 고려사항



Source: 삼정KPMG

“ ESG 공시 솔루션 및 모델링 엔진의 핵심 ... 프로세스 표준화 및 자동화, 데이터 거버넌스 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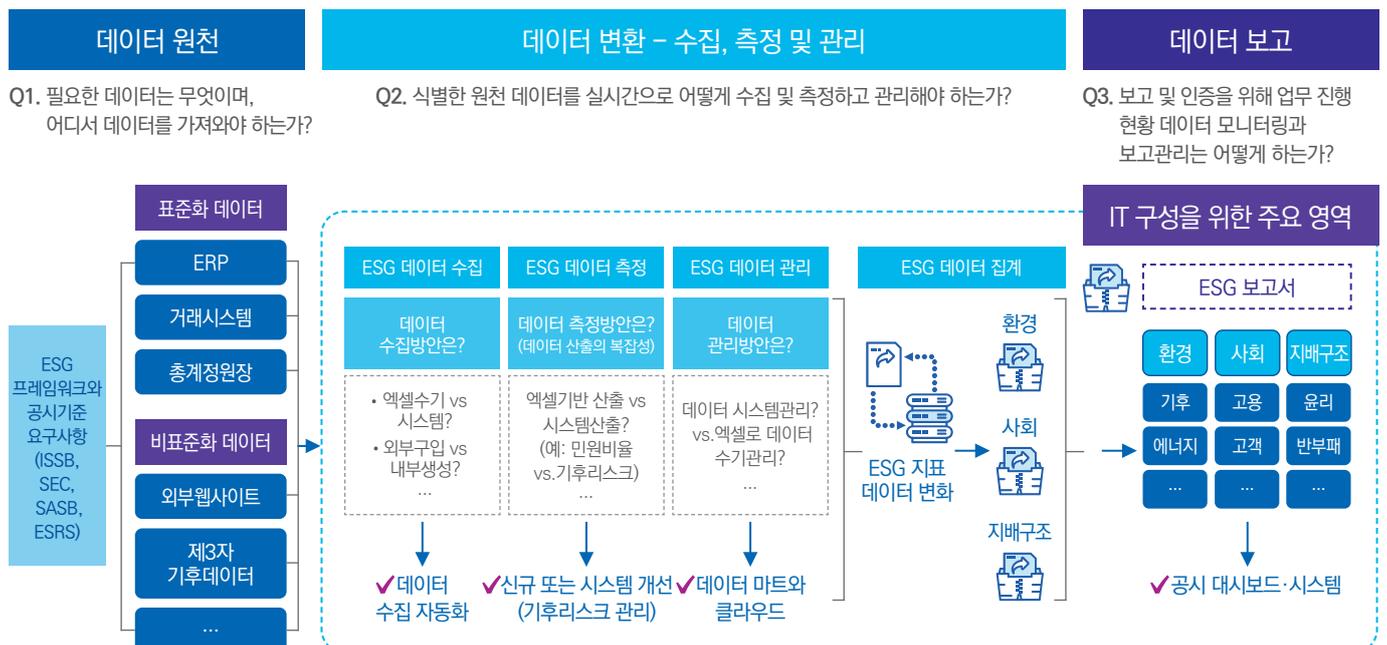
하지만, 급변하는 뉴노멀의 공시 변화에 대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공시 체계 구축을 위한 ESG 프로세스 수립과정 속에서 시스템과 ESG 데이터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ESG 정보 공시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시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 강화 요구에 대해 기존 수작업 기반 정보생성에서 시스템 기반의 정보생성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업 내부 및 외부 내 다양한 원천의 데이터에 대해 신뢰성과 관리측면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ESG 공시의 새로운 공시솔루션 또는 모델링 엔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현재 회사의 시스템 등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지원하도록 잠재적으로 고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기 업무관행을 줄이려면 프로세스 및 통제의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분석이 필요하며, ESG 데이터에는 재무 및 비재무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공통 데이터 정의, 일관된 계층 구조 및 조직 전체의 데이터 거버넌스 조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ESG 데이터 및 시스템도 다양한 업체에서 특정 목적에 맞는 많은 솔루션이 있다. 기업들은 모든 시스템 및 데이터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실버 불릿(Silver Bullet)’은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ESG 데이터 원천·변환 및 ESG 데이터 보고 흐름



Source: 삼정KPMG

“ ESG 공시 거버넌스 및 정책 ... 공식화된 기업 방침 및 규범 체계 수립 중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수준의 통제 필요 ”

(4) 거버넌스와 정책

ESG 공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한 후 기업들은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엔진인 공시 거버넌스와 정책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에서는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시스템 및 데이터관리 거버넌스 체계 수립, 정보의 입력, 산출, 관리, 검증의 기능별 역할의 분리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과 명확한 이해를 위해 ESG 정보공시 관련 내부 정책 정비 및 문서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거버넌스 수립 시 최근 US SEC 기후법안 등과 같은 ESG 공시기준의 요구사항들은 ESG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시뿐만 아니라 ESG 정보공시를 생성하는 과정, 즉 ESG 관련 내부통제(SOX-like internal controls)에 대한 결과와 외부감사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외부규제에 대응뿐만 아니라 최근 요구되고 있는 ESG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내부적인 확신을 위해서 재무보고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같은 견고한 ESG 통제에 대한 구축 관련 단계적인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고주체와 보고범위에서도 재무정보와 동일한 연결 실체에 대해 ESG 공시를 요구함에 따라 기업부서 간뿐만 아니라 그룹사 간에 일관성 있는 보고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ESG 정책에 대한 공식화된 문서화와 재무보고에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그룹사에 정책 지침서와 같은 ESG 공시를 위한 그룹정책에 대한 정비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공시 거버넌스 체계의 조직적인 변화는 급진적인 이행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공시 의무화에 맞춰 단계적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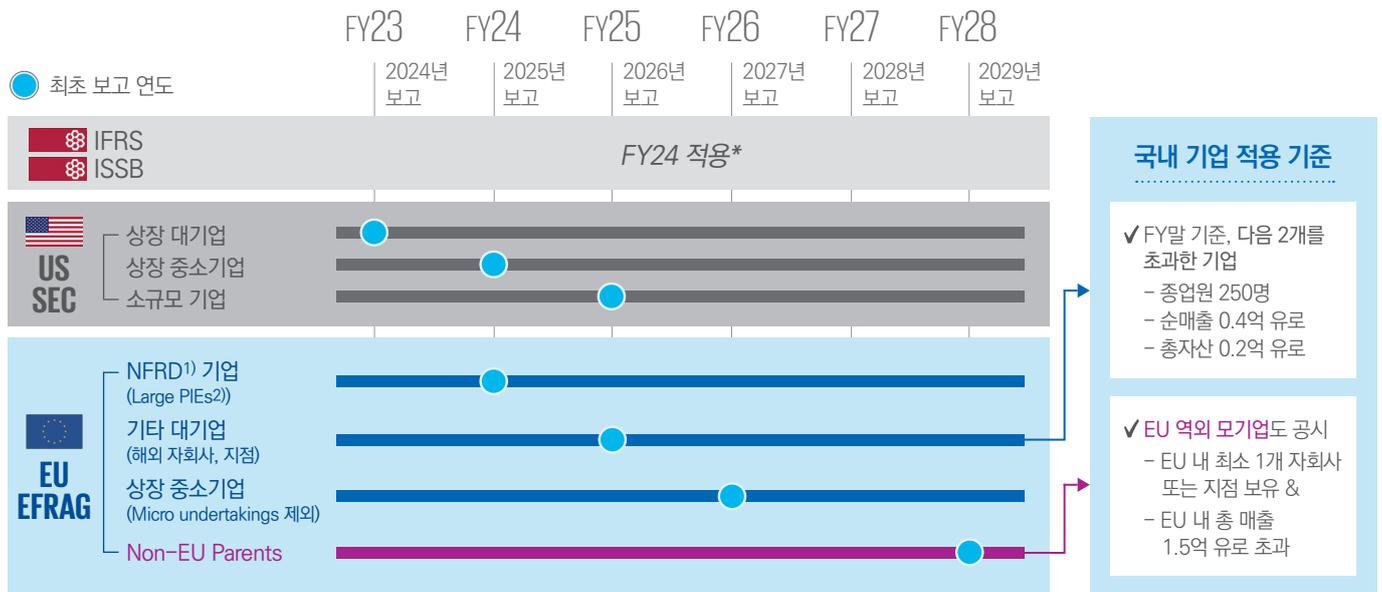


ESG 정보공시 대응 기업별 상황 진단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

2023년은 ESG 정보공시 시대를 맞이하는 원년으로 국내 기업에게 중요한 해이다. ESRS (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S1/S2,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관련 공시 법안이 모두 확정될 경우 공시기준 표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SG 정보공시 적용 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별 ESG 공시 의무화 시기



Source: 각 기관, 삼정KPMG

Note: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공시시점은 2025년임. 다만 시행 시점은 국가별 ISSB 기준 도입 시점에 따라 다름. Scope 3 공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공시

- 1)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CSRD의 전신으로 2017년부터 직원이 500명 초과인 대형 상장 기업, 은행 및 보험 회사 대상으로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
- 2) PIE: Public Interest Entities, 통상적으로 유럽 기준의 대기업을 의미함

ESG 정보공시 방법: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점에 ESG 정보공시를 요구

	SEC	ISSB	EFRAG	
재무제표에 공시가 요구되는 항목이 있나요?	✓ ¹⁾	✗ (상호 참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는 재무적 영향, 지출 지표 및 재무적 추정치와 가정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상 주석에 공시 요구 ■ 외부감사 및 SOX(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
연차 보고서에 공시되어야 하나요? (사업보고서)	✓ ²⁾	✓ (공시 위치 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B가 한국에서 의무화 전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ESG 우수 기업들은 ISSB 공시기준 선도적으로 채택 예상 ■ 투자자 공시 요구 가속화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점에 공시되어야 하나요?	✓	✓ 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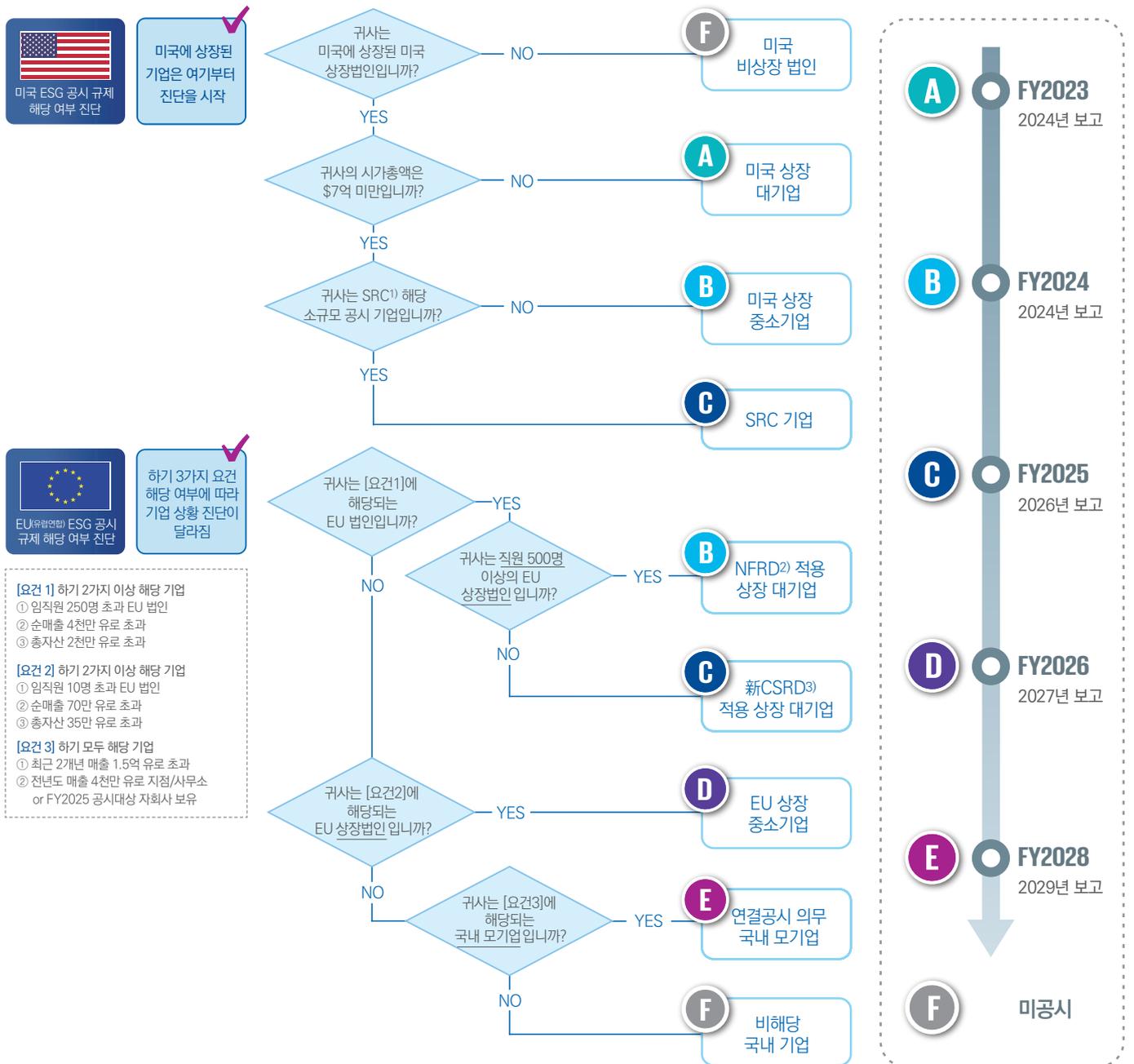
Source: SEC, ISSB, EFRAG, 삼정KPMG

Note: 1) 재무적 영향, 지출 지표 및 재무적 추정치와 가정을 주석 공시, 2) 연차 보고서 내 별도 영역에 공시 혹은 MD&A(경영진단언건서)와 같은 영역 참조로 공시, 3) 공시 시점 관련 논의 진행 중

ESG 공시 규제에 따른 한국 기업 상황 진단

ESRS(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S1/S2,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운데 한국 기업은 자사 상황에 따라 최소 2~3개의 기준을 동시에 분석·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또한 2025년으로 예상되는 국내 ESG 공시 의무화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의 상황 진단이 급선무이다. 각 ESG 정보공시 규제에 따라 우리 회사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파악해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이에 글로벌 ESG 공시 규제에 따른 한국 기업의 상황 진단 트리(Decision Tree)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글로벌 ESG 공시 규제에 따른 한국 기업 상황 진단



Source: 삼정KPMG

Note: 1) SRC(Smaller Reporting Company): 유동자산 7,500만~7억 달러인 기업 중 연 매출 1억 달러 미만 기업, 2)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정보공개지침
3)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ESG 정보공시 대응 로드맵

“ ESG 공시 의무 대응 1단계 … 기업별 준비도 진단, 준비도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

글로벌 ESG 공시 의무 대응을 위한 3단계 로드맵

국내 기업이 다가오는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에 문제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이 남지 않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ESG 공시 대응 방향성을 3단계로 제안한다.

우선 1단계로 신규 공시기준에 대한 준비도(Readiness)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2단계 공시 데이터 관리 체계화를 위한 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3단계로 ESG 정보공시에 대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R&R(역할·책임)을 정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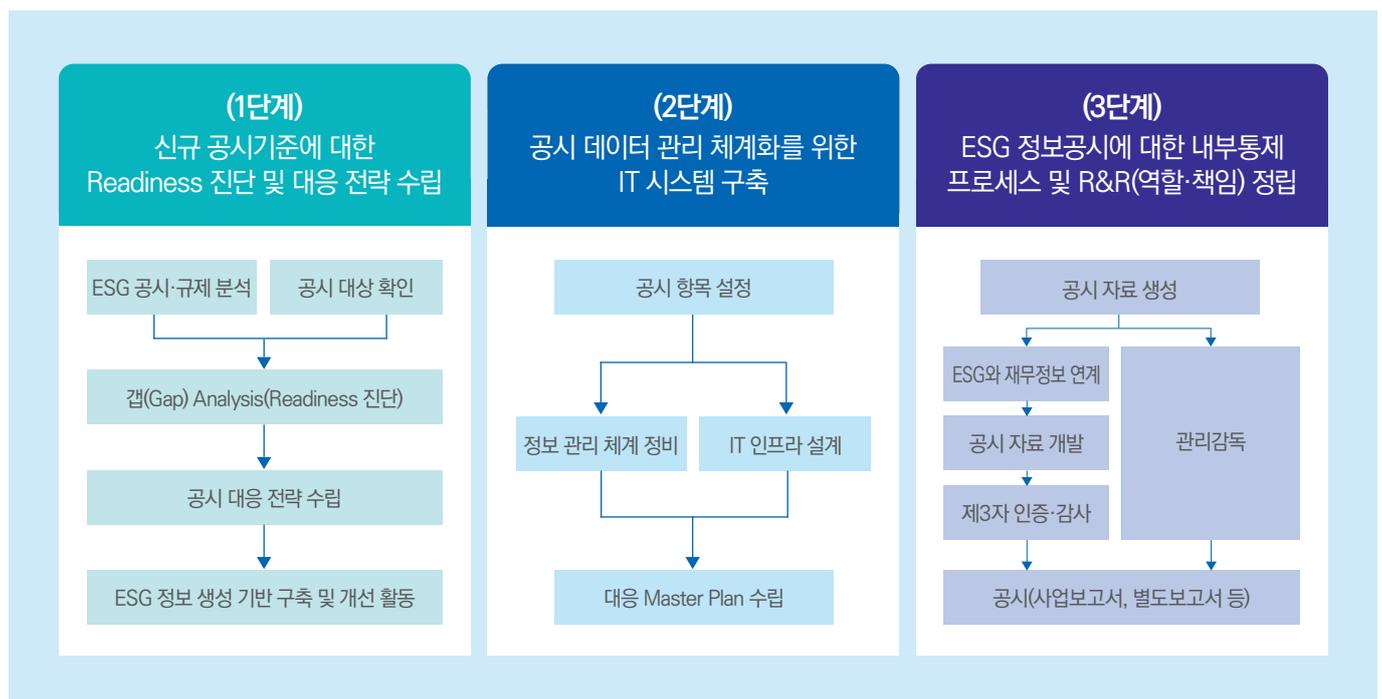
(1) 신규 공시기준에 대한 Readiness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ESG 담당 조직 주도로 공시 항목에 대한 관리 및 개선 전략을 수립한 후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인 이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SG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적용 대상 공시기준별로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후 공시 요구 수준 대비 대응 현황을 점검하여 개선 필요 영역을 정비해야 한다.



» 국내 기업의 글로벌 ESG 공시 의무 대응을 위한 3단계 로드맵



“
 글로벌 공시 규제들이 모두
 연결기준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 ... 연결 공시를
 준비하기 위해 종속 대상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으로 취합·관리 ”

우선 자사와 종속회사, 주요 해외법인의 적용 대상 규제를 확인한 후 해당되는 규제별 준비도 (Readiness)를 진단해야 한다. 규제별로 요구하는 공시 지표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실행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대응이 필요한 공시 지표를 자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분류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전체 공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정립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며, 공시기준별로 상이한 요구사항 분류 기준을 자사 관리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현황 분석 및 관리 용이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공시기준별로 요구하고 있는 세부 공시 요건을 사전에 정리하여 공시 대응 관점에서 To-do List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동일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각 기준별로 요구하는 공시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상에 따라 선택적 관리 또는 포괄적 관리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글로벌 공시 규제들이 모두 연결기준으로 공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공시를 준비하기 위해 종속 대상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취합·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 공시기준별 세부 영역별 요건 확인 및 자체 분류체계 수립

분류		공시기준	세부 공시 요건
E1 기후변화	전략	EU CSRD	시나리오 기반 기후 회복력 결과가 사업 전략에 반영된 방식에 대한 설명
E1 기후변화	전략	ISSB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소가 기업의 사업모델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E1 기후변화	전략	US SEC	사업 전략, 리스크 관리, 재무 감독의 일부로 기후 리스크 고려 여부
E1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US SEC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포괄하는 Scope 1과 2 배출량 총계
E1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EU CSRD	Scope 1, 2 및 3을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총계
E2 환경 오염	대기 오염	EU CSRD	대기오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목표
E2 환경 오염	수질 오염	EU CSRD	수질오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목표
S1 인적 자본 관리	임직원 삶의 질	EU CSRD	기업이 위치한 국가별 Peer 대비 적정 임금 제공 여부
S2 기본권 존중	다양성 존중	EU CSRD	전체 임직원 대비 여성 임원의 비율
G1 기업 윤리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체계	EU CSRD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를 위해 방지 및 식별하는 관리 체계 보유 여부
G1 기업 윤리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체계	EU CSRD	뇌물 수수 및 부패 관련 소송 건수 및 비용
...

공시기준별 상이한 문항 구성을 자사 관리기준으로
 재분류 → 현황 분석 및 관리 용이성 향상

지표 영역별 세부 관리 필요 요건 정리
 → 공시 대응 관점 To-do List 명확화

“
 면밀한 공시 대응을
 위해서 ... 동일 지표에
 대해 공시기준별 요구 수준
 및 요건을 취합·분석하여
 관리 포인트 도출 ”

정량 데이터는 전사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취합·관리할 수 있는 공시 정보 데이터 세트 (SET)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ISSB, US SEC, EU CSRD를 모두 대응해야 하는 회사는 각 기준에서 요구하는 세부사항을 아우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빈틈없는 공시 대응을 위해서는 동일 지표에 대해 공시기준별 요구 수준 및 요건을 취합·분석하여 관리 포인트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Scope 1, 2 배출량을 공시할 때 US SEC와 ISSB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위치 및 시장별 배출량을 구분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할 때는 EU CSRD의 경우 배출원별로 공시해야 하는 반면, US SEC는 온실가스 종류별로 공시를 요구한다. 따라서 공시 규제별로 요구하는 세부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종속 대상 기업까지 해당 정량 데이터를 취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SASB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산업별 중요 이슈 맵(Map)을 정립하여 자사 및 종속 대상 법인의 중요 지표에 대해 공시 정보를 취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공시기준별 요구 수준 비교 및 관리 포인트 도출 예시

지표(예)	공시기준	공시 방향		세부 공시기준	Scope 3 관리 포인트
		정성	정량		
Scope 3 배출량	SEC	-	✓	✓ Scope 3 배출량이 사업상 '중요'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Scope 3 포함' 시 공시 → <u>배출량 총계 및 7대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공시</u>	- Scope 3 주요 배출원 : 적용 범위 기준 관리 필요 - 배출량 총계 - 배출원별 배출량 -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ISSB	✓	✓	✓ GHG(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준에 따라 산출된 Scope 3 배출량 총계 공시 → 총 배출량 산정 시 포함된 범주에 대한 설명 필요 → 배출량 미포함 영역에 대한 <u>제외 사유 서술 필요</u>	
	EFRAG	-	✓	✓ Scope 3 영역별 및 배출량 총계 공시 → 총 배출량 산정 시 <u>포함한 주요 Scope 3 배출원을 정의하고 해당 배출원별 배출량 공시</u>	

(2) 공시 데이터 관리 체계화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글로벌 ESG 공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이 공시에 필요한 ESG 관련 내·외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IT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 ESG 공시 의무 대응 2단계 ... ESG 내·외부 데이터 효과적으로 수집·관리·모니터링하는 체계 및 IT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공시 규제 대응을 위해 IT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ESG 데이터 생성의 적시성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ISSB 기준에 따르면 ESG 보고서를 재무제표 공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생성하는 ESG 데이터가 연 단위가 아닌 분기나 월 단위 수준으로 집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IT 시스템 기반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ESG 데이터 생성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IT 시스템 기반의 관리가 필요하다. 수기 입력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기존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 기반의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으로 오류를 식별·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 부서별 데이터 승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산출된 값에 대한 내부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룰 수 있고 데이터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대외 검증 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단, ESG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기업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구축 시에는 ESG 정보 시스템 기능 요건을 정의한 후 기존 레거시(Legacy) 및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과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SG 공시 시스템 개요



“ ESG 공시 의무 대응 3단계 ... ESG 데이터 생성·집계·승인에 대한 프로세스 및 권한 공식화, 적합한 내부통제 지침 수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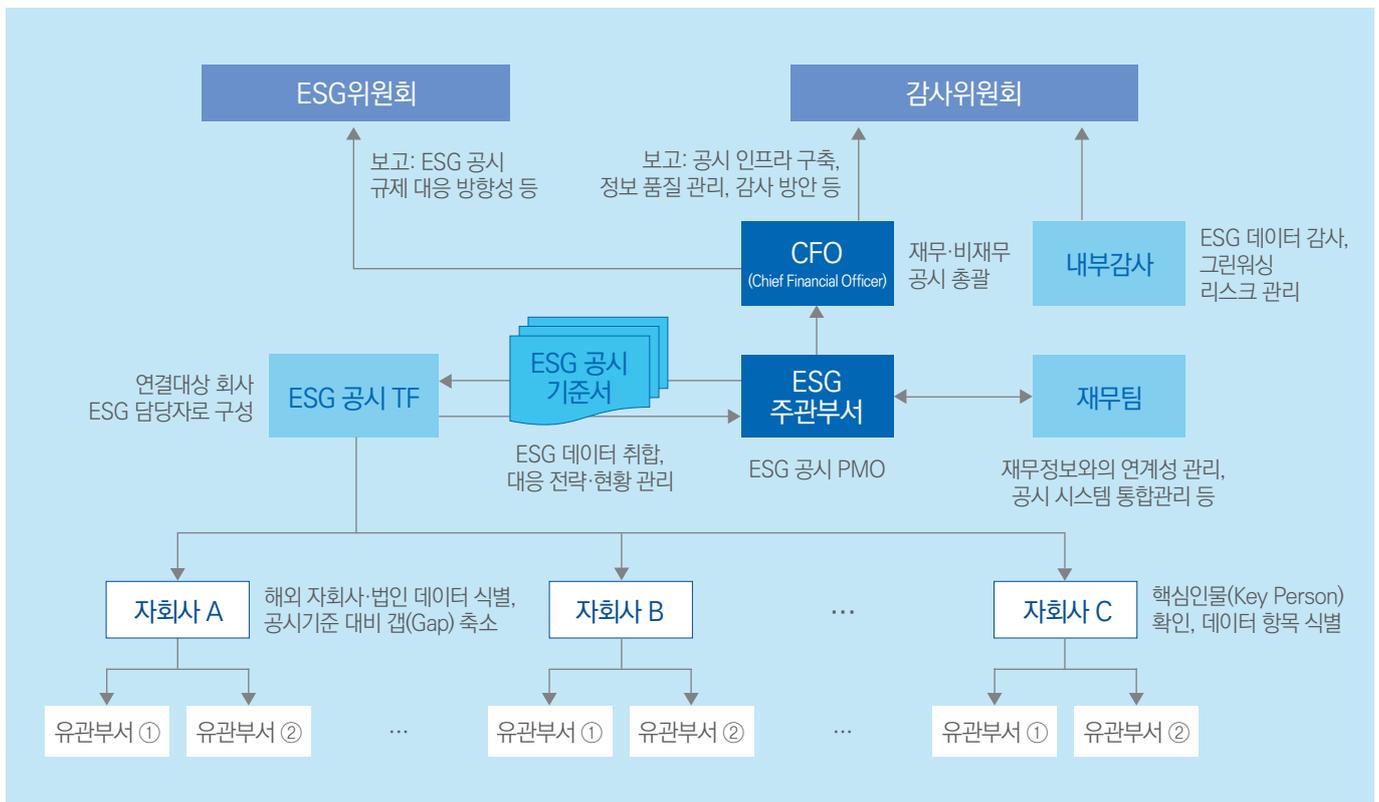
(3) ESG 정보공시에 대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R&R 정립

글로벌 ESG 공시 규제는 모두 연결기준 재무보고 수준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공시 대상 기업이 연결기준 대응 및 공시 신뢰성 확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회사·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ESG 데이터 취합·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프로세스, 감사위원회 관리·감독 체계까지 폭넓은 R&R 준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글로벌 ESG 공시 규제들은 기업의 공시 의무뿐만 아니라, 공시 내용에 대한 외부 감사 또는 검증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공시 의무화 적용 익년부터 검증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시 대상 기업들은 사내 ESG 데이터 생성·집계·승인에 대한 프로세스 및 권한을 공식화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내 ESG 유관부서-공시 실무자-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하고, 나아가 CFO 및 감사위원회 레벨의 ESG 공시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사내 내부감사 조직은 ESG 데이터 감사 및 그린워싱(Greenwashing) 리스크 관리도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CFO는 공시 최고 관리책임자로서 생성된 ESG 정보의 신뢰성과 재무정보 연계성을 관리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에서 나아가 ESG 리포팅(Reporting)에 대한 최종 감독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글로벌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R&R 정립 방향성



공시 준비 Timeline 및 Key Milestone

“ US SEC 기후공시 대상 기업은 2023년까지, EU CSRD 및 ISSB 공시 대상 기업은 2025년까지 공시 준비 완료 ”

글로벌 ESG 공시 규제별 준비 Timeline 및 Key Milestone

공시 규제 종류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시 요구 수준 대비 현황 점검, 개선 영역 정비 및 연결공시 대응을 위한 IT 시스템 정비, 내부통제 절차 및 거버넌스 확립까지 약 3년의 도입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서 차별적인 대응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이유는 공시 규제별로 적용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US SEC 기후공시 대상 기업은 2023년까지 공시 준비를 완료해야 하고, EU CSRD 및 ISSB 공시 대상 기업은 2025년까지 공시 준비를 마쳐야 한다.

(1) US SEC 기후공시 준비 Timeline

US SEC 기후공시 대상 기업은 2023년 상반기에 공시 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준비도 (Readiness) 진단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공시 대응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2024년 첫 공시 대응을 하면서 부족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ESG 공시 시스템 구축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2) EU CSRD 및 ISSB 공시 준비 Timeline

EU CSRD 및 ISSB 공시 대상 기업은 2023년 내 공시 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준비도 (Readiness)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4년부터는 ESG 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2024년 하반기에는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R&R 정립을 추진해야 FY25 공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기업은 상황에 따라 공시 준비 Timeline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규제 적용 시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 글로벌 ESG 공시 대응을 위한 시점별 Key Milestone

Workstream	2023				2024				2025				2026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1단계) 준비도 (Readiness)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	ISSB & SEC 공시기준 발표 및 적용				US SEC 적용 → US SEC 공시				ISSB 국가별 채택(1~1.5년 소요) → ISSB, CSRD 공시				
		ESG 공시 기준 Gap 분석	As-is 현황 및 Gap 분석	공시대응 방향성 설정	SEC 공시 대응								
		공시 대응조직 구축											
(2단계) IT 시스템 구축					필요 정보 취합 방안 수립								
					유관부서 R&R 설정								
					ESG 연결공시 IT 시스템 구축								
									관련 데이터 개발, 모니터링, 수립				
(3단계)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R&R 정립								통제절차 구축, 경영진 및 이사회 감독 체계 수립, 보상체계 연계					
								공시정보 생성·관리 이행 감사인과 협의				EU·국내 공시	

Source: 삼정KPMG

ESG



ESG 정보공시 체계 성숙도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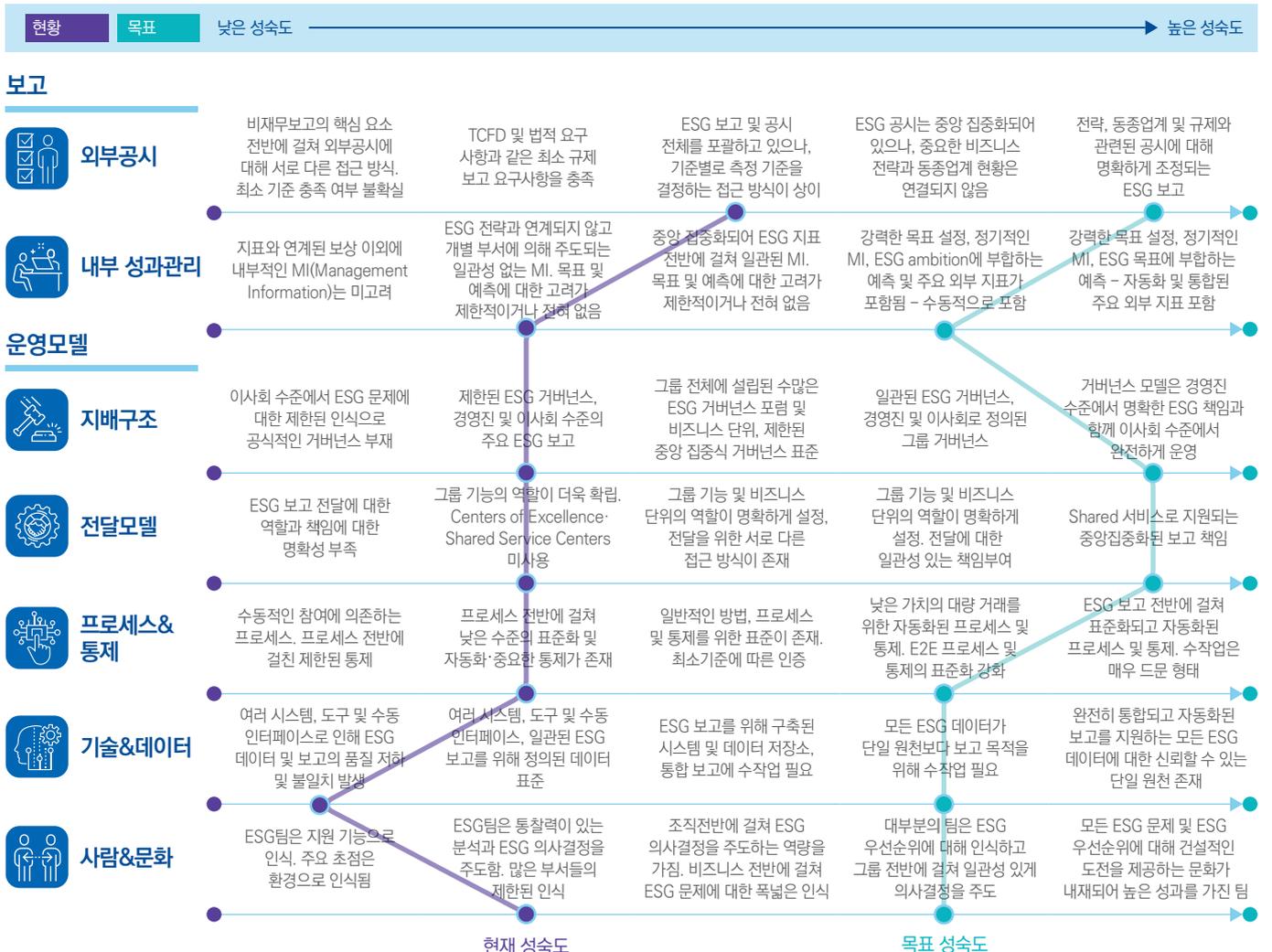
“ 가장 먼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현재의 ESG 성숙도에 대한 진단과 목표운용모델 수준을 설정하는 것 ”

기업마다 다른 ESG 성숙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ESG 경영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ESG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ESG 경영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ESG 성과를 시장에 공시하는 ‘ESG 정보공시’이다. 과거 몇 년간 기업들은 ESG 경영전략에 집중해 왔으며, 그 결과 ESG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반면, ESG 정보공시는 성숙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마다 처해있는 전반적인 ESG 성숙도가 달라지게 되었고, 한 조직 내에서조차도 각 영역별 성숙도가 차이나는 상황이 되었다.

ESG 정보공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기업이 처해 있는 ESG 성숙도에 대한 진단과 목표운용모델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ESG 정보공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각 영역별로 성숙도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여 개선분야에 대해 식별하고 단계적인 ESG 정보공시 체계의 목표수준을 설정한 후 로드맵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ESG 정보공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과정은 특히 장기적 관점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기업은 ESG 성숙도에 따라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ESG 정보공시체계 성숙도에 따른 구축 수준



Source: 삼정KPMG

“ 자사의 ESG 성숙도 및 개선 분야를 식별하고 선별하여 중장기적 관점으로 ESG IT 시스템 구축 ”

ESG 정보공시 체계의 IT 시스템과 직면과제

ESG 정보공시의 성숙도가 낮을수록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여 정보를 생성하는 반면,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ESG 데이터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공시 요구사항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작업에 기반하는 비정형화된 프로세스로는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렵다. 더욱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T 시스템에 기반해 ESG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많은 IT 솔루션이 탄소 관리, 데이터 집계 및 관리, 공시 현황 모니터링 등 각 분야별로 개발되고 있다.

ESG 정보공시 체계를 IT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많은 기업들은 낮은 ESG 성숙도로 인해 ESG 데이터 수집, 측정, 관리 및 집계의 전 과정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원천, 수작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 ESG 데이터의 No audit trail, ESG 공시에서의 자신감 결여 및 성과분석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데이터 수집 자동화 및 연계, 데이터 측정 및 관리, 공시 대시보드 등을 고려한 ESG 정보공시의 IT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솔루션은 없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ESG 성숙도 및 개선 분야를 식별하고 선별하여 중장기적으로 ESG IT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SG 정보공시 체계의 시스템화 과제 및 대응 솔루션

	서로 다른 데이터 원천	수작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	ESG 데이터의 No audit trail	ESG 공시에서의 자신감 결여	ESG 성과 분석의 어려움
ESG 보고 도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표준화된 형식의 정형화된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 (예: 회계 및 재무, 인사, 환경)와 별도로 위치하는 경향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보고에 필요한 정보는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조직 전반에 분산되어 있음. 수시로 요청하는 데이터는 패치를 통해 임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식 데이터 모델의 부재로 인해 ESG 정보 및 관련 메타데이터를 원본으로 되돌리는 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ESG 규제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다양한 ESG 프레임워크 (예, SASB, GRI)와의 통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데이터는 보고를 위해 작성되어 있으며, 프론트 오피스는 데이터를 인사이트 및 효과적인 공시로 변환하는 방법을 인지해야 함
대응 솔루션	ESG 데이터 취합 및 집중화	원시데이터의 수집, QA(품질보증) 및 변환 자동화	ESG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고 목적과 목표에 맵핑(Mapping)	새로운 ESG 데이터 집합을 취득하고 제3자 데이터 접근성 향상	기후정보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대시보드 구성

“ 시스템 도입은 업무 편의성 관점이 아닌 ESG 공시 적시성, 글로벌 공시표준 적합성, 증빙 신뢰성, 지속적·실질적 지표 개선의 관점에서 검토 ”

ESG 정보공시를 위한 'IT 시스템' 기능요건 및 구축 방안

아직까지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기업도 적지 않다. 특히 지금까지 ESG 담당부서나 TF를 구성하여 매뉴얼 작업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해 오던 기업들은 고도화된 시스템 도입이 불필요한 IT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된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은 업무 편의성 관점이 아니라 공시 적시성, 글로벌 공시표준 적합성, 증빙 신뢰성 (Audit-ready), 지속적·실질적 지표 개선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은 도입 목표와 수준에 따라 시스템·데이터 요건을 정의하여 단계적 구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기능요건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① IT 시스템 핵심 기능요건

ESG 데이터 통합 관리: 매뉴얼 취합 → 표준화, 자동화 확대

가장 먼저 시스템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ESG 데이터 통합 관리이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ESG 공시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를 매뉴얼 방식으로 취합·가공하고 있다. 해당 방식으로는 산재한 데이터 취합이 어려울 뿐더러 데이터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데이터 제공 부서에 리스크가 뒤따른다. ESG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선도 기업조차도 원천 데이터를 자동 취합하지 않고 엑셀양식에 맞춰 데이터를 집계한 뒤 시스템에 업로드하다 보니 ESG 담당자들의 고충이 상당하다.

» 기업의 ESG 정보공시 직면과제



“ 외부 공시, 내부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동일 원천 데이터와 표준화된 산출 로직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정합성 및 신뢰성을 담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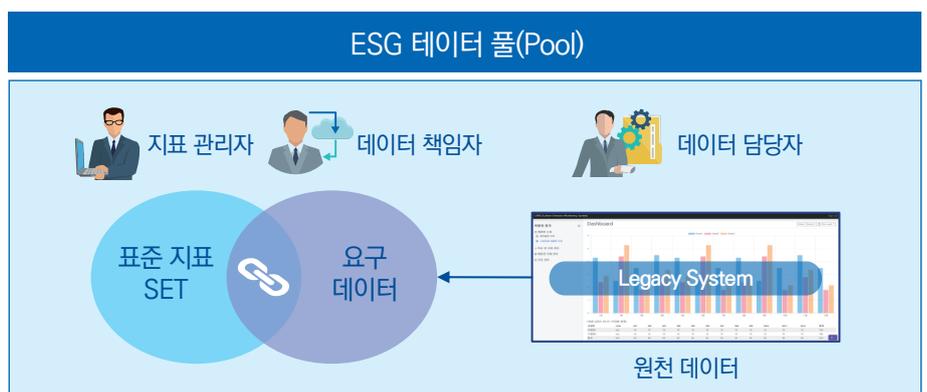
더욱이, 지금과 같이 연 1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넘어서 향후 글로벌 공시표준, 재무 보고 시점과 동일한 보고 주기(분기/월),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의 데이터 증빙 상시 요구 등에 대응하려면 내부 유관 시스템 데이터나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 데이터를 합의된 로직에 맞추어 시스템 내에서 체계적으로 취합·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 공시, 내부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동일 원천 데이터와 표준화된 산출 로직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정합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기능의 내재화이다. 글로벌 공시표준에서 가이드하는 정보 신뢰도의 척도는 데이터 오너(Owner)와 데이터 프로세서를 포함한 거버넌스 확립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상의 ESG 유관 데이터 생성, 취합에 관한 승인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핵심 시스템 요건: 데이터 정합성·신뢰성 담보]

- 데이터 풀(Pool) 및 지표 산출 로직 표준화: 글로벌 공시기준 및 다양한 활용 목적에 따른 데이터 가공 시, 표준화된 원천 데이터 및 지표 산출 로직을 정의·관리·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자동 집계: 다양한 데이터 원천 시스템과의 I/F(인터페이스) 개발 및 확장, 수작업 업로드에 대한 표준 템플릿(Template)을 적용해야 한다.
- 데이터 거버넌스 내재화: 지표 관리자, 데이터 책임자, 데이터 프로세서의 정의 및 승인 프로세스를 지원해야 한다.

» ESG 데이터 풀(Pool) 개념 - 표준 지표와 데이터의 연계 관리



“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근거 데이터 요청에 대해서도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갖춰야... 그린워싱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방지 가능 ”

글로벌 공시 대응 지원: 지표 세트, 공시 프로세스 내재화, 상시 증빙

SEC, ESRS, ISSB 등과 같은 다양한 공시 표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 지표 세트를 관리하고, 나아가 산업별 주요 관리 지표를 구분·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표는 앞서 설명한 ESG 데이터와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시표준별 보고서에 작성하는 데이터와 보고 내용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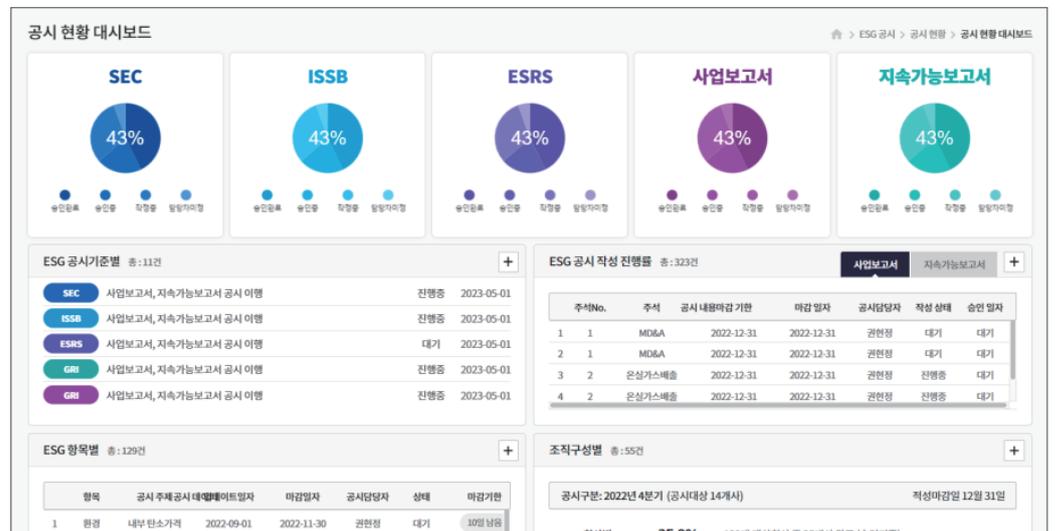
또한 외부 기관이나 타 기업으로부터의 근거 데이터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

[핵심 시스템 요건: 글로벌 공시표준 상시 대응]

- ESG 지표 세트 관리: 표준별, 산업별 지표 세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ESG 표준 보고서 작성 지원: 표준 보고서 양식 지원(ISSB, SEC, ESRS 등),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지원(담당자, 일정 등), 공시 현황 대시보드를 통하여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
- 상시 증빙 지원: 지표별 상세 조회, 데이터 거버넌스 지원을 통하여 외부 기관이나 타 기업으로부터의 근거 데이터 요청에 대하여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재무영향 평가, 개선활동과 보고서 작성 연계: 기후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재무영향도 평가, 친환경 경영활동 분석 결과를 보고서 작성과 연동하도록 한다.



» ESG 공시 현황 관리 화면 예시



Source: 삼정KPMG

“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영향 분석·관리를 위해 ... 통합 데이터 기반 재무영향 시뮬레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 확보 필수적 ”

재무-비재무 연계분석 지원: 재무 및 자산정보 취합, 재무 시뮬레이션

기후 리스크는 기업가치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고, 이로 인한 재무영향 식별 및 분석은 공시 규제 대응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워 하는 영역이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물리적 피해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환 비용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는 일은 재무계정 및 자산정보 취합, 재무적 가치로의 전환 로직,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버전 관리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재무가치 산출 엔진이 필요하므로 매뉴얼 방식으로 진행·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 데이터 기반 재무영향 시뮬레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 확보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또한 분석 결과는 공시보고서 및 기관·기업이 요청하는 리포트 작성기능과 연동되어 일관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핵심 시스템 요건: 기후 리스크·기회 재무영향도 분석]

- 통합 데이터 관리: 재무정보, 자산정보, 외부 표준 데이터 통합관리가 되어야 한다.
- 기후 리스크 재무영향 분석 기능: 분석 가정 설정과 함께 재무가치 전환 로직이 중차대하다.
- 공시보고서 연동: 분석결과를 공시보고서에 즉시 연동하여 분석 신뢰도를 높이고 증빙 요청 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연동하여 대응해야 한다.

기후변화 리스크·기회에 대한 재무적 영향 분석 구조·분석 결과 화면 예시



	반영 전	재무영향	반영 후
1. 재무상태표(요약본)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반영전	재무영향	반영후
자산			
유동자산	7,027,873	(364,900)	6,662,973
현금및현금성자산	2,099,464	(195,000)	1,904,46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013,188	(66,600)	946,588
재고자산	1,967,262	(57,300)	1,909,962
2. 현금흐름표(요약본)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반영전	재무영향	반영후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908,604	(4,485)	1,904,119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28,703	(163,431)	1,165,27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130)	(15,862)	(86,99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32,452)	(1,393)	(1,133,84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65,739	(9,830)	55,909
2. 현금흐름표(요약본)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반영전	재무영향	반영후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908,604	(4,485)	1,904,119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28,703	(163,431)	1,165,27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130)	(15,862)	(86,99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32,452)	(1,393)	(1,133,84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65,739	(9,830)	55,909

“ESG DB 기반으로 리스크·기회 요인 및 재무영향 산출 로직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갖추어 물리적 위험에 대한 외부 데이터 및 통합 분석 시뮬레이션 엔진을 통해, 기업의 담당자는 시나리오 설정, 재무 및 자산 정보 연결, 리스크·기회 요인별 데이터를 입력하여 분석 수행의 난이도를 낮추면서도 통합적 분석 및 공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분석 자료 확보가 가능”

“ ESG 시스템 핵심 요건... 통합 데이터 관리, 친환경 활동 분류, 공시보고서 연동 ”

친환경 재무지표 산출: EU Taxonomy 기반 친환경 경영활동 분류

EU Taxonomy란 기업의 경영활동 중 친환경적인 활동을 분류하기 위해 EU가 정의해놓은 판단 기준이다. 크게는 EU가 관리하고 있는 카테고리에 경영활동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인 적격이라는 첫 번째 Step과 기술요건, DNSH(Do No Significant Harm, 다른 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최소한의 사회적 세이프가드 충족에 대한 내용인 적합이라는 두 번째 Step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EU 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EU Taxonomy에 적합한 매출액, Capex(설비투자), Opex(운영비용)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2025년부터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적용 대상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빈틈없는 친환경 경영활동 분류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시스템은 ERP 등에서 관리되는 기업의 재무 및 자산 정보와 연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EU Taxonomy의 공식적인 기준과 로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핵심 시스템 요건: 친환경 활동 재무지표 산출]

- 통합 데이터 관리: 재무정보, 자산정보, 외부 표준 데이터를 통합관리해야 한다.
- 기준 변경 대응: 규제 및 기준의 변경에 시스템을 통해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 레거시(Legacy) 측정 데이터 활용: 기존 기업이 보유한 레거시 시스템의 측정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적격·적합 판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공시보고서 연동: 분석 결과를 공시보고서에 즉시 연동하여 분석 신뢰도를 높이고 증빙 요청 시, 분류에 대한 증거를 연동하여 대응해야 한다.



» 친환경 경영활동 분류 화면 예시

계정명	Code	TEXT	금액	사업장 위치	Taxonomy 적격 연계 확인	입력	승인	Status	승인일		
					연계 여부	환경 목표	연계 활동	입력자	입력일	승인자	
유형자산-설비	AAA000TAXO1101	사업장A 펌프 신규	15,000	KOR01	✓	기후 변화 완화	3.7	정상혁	23.05.03	김사연	승인 대기
유형자산-설비	AAA000TAXO1102	사업장A 판넬 신규	1,400	KOR01	✓	기후 변화 완화	3.7	정상혁	23.05.03	김사연	23.05.03
유형자산-설비	AAA000TAXO1103	사업장A 펌프 유지보수	2,350	KOR01	미입력	미입력	미입력				입력 대기
유형자산-설비	AAA000TAXO1104	사업장B 펌프 신규	17,500	KOR02	✓	기후 변화 완화	3.7	정상혁	23.05.03	김사연	23.05.03
유형자산-설비	AAA000TAXO1105	사업장B 판넬 신규	1,400	KOR02	✓	기후 변화 완화	3.7	정상혁	23.05.03	김사연	23.05.03
유형자산-설비	AAA000TAXO1106	사업장B 펌프 유지보수	2,350	KOR02	미입력	미입력	미입력				입력 대기
유형자산-설비	AAA000TAXO1107	사업장C 펌프 신규	17,500	KOR03	✓	기후 변화 완화	3.7	정상혁	23.05.03	김사연	승인 대기
유형자산-설비	AAA000TAXO1108	사업장C 판넬 신규	1,400	KOR03	✓	기후 변화 완화	3.7	정상혁	23.05.03	김사연	23.05.03

Source: 삼정KPMG

“ 개선과제 정의 및 과제를 통한 개선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관리 체계 필요 ”

ESG 지표 및 활동 성과에 대한 가시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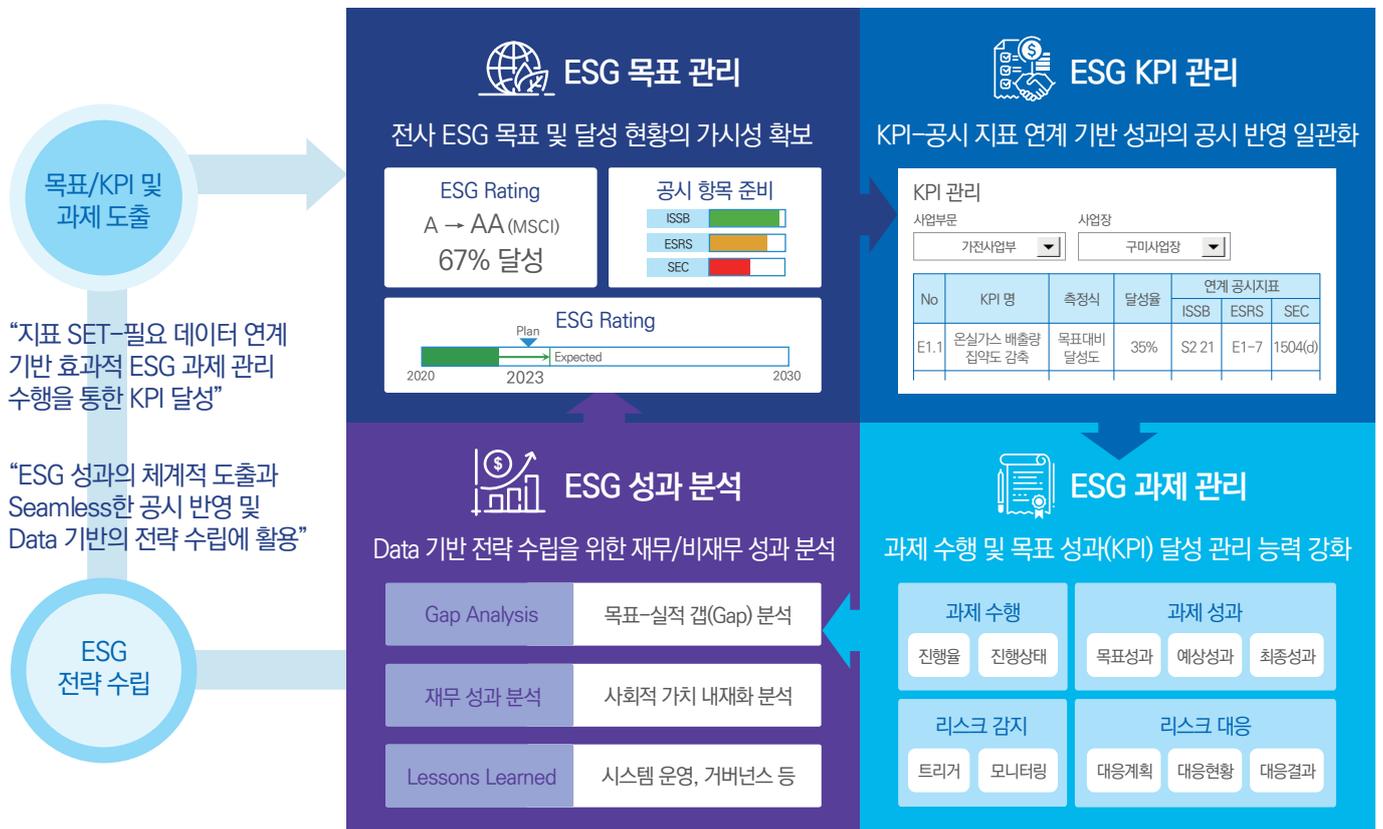
ESG 경영 체계 선도 기업은 실질적 ESG 개선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정의하고 사업현장에서의 ESG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ESG 전반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 현황의 갭(Gap)을 인식하고 상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정의하고 현황 및 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기반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시 및 재무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Dashboard)를 통하여 이슈영역의 가시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위 레벨의 인포그래픽(Infographic)의 수준을 넘어서는 분석 기능과 통합된 ESG 데이터 구조가 그 기반으로 갖춰져야 함을 의미한다.

[핵심 시스템 요건: ESG 과제 관리]

- 관리의 일관성 확보: 과제 관리 전반의 프로세스 내 통합 ESG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KPI-지표-과제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 과제 현황 및 성과 모니터링: 연계 체계 기반의 추적성 확보로 과제 달성 및 리스크 감지·대응과 함께 성과 측정의 다층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성과 분석: 목표와 실적 간 갭(Gap) 분석, 사회적 가치 내재화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재무 성과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스템 운영, 거버넌스 등을 통해 향후 개선점을 도출하는 Lessons Learned 과정도 중요하다.

ESG 과제 관리 시스템 프로세스



“ ESG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인 기능 정의 및 구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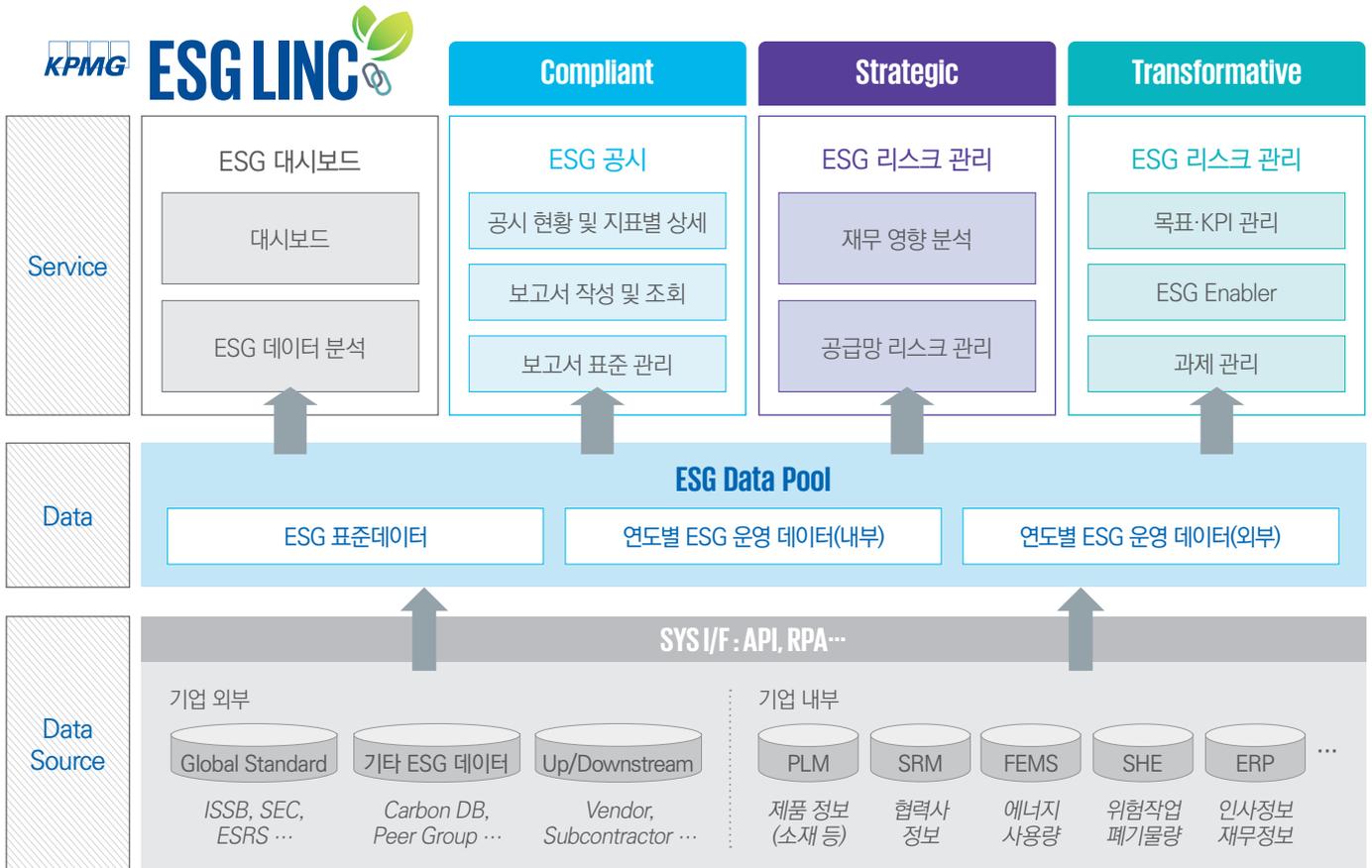
② ESG 정보공시 IT 시스템 도입 방안

단기간에 정보공시 대응을 위하여 요구되는 시스템 기능 요건의 완성도를 높이는 쉽지 않다.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자체 시스템 구축과 전문 솔루션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도 쉽지 않다. 데이터 준비도, 규제 대응 수준의 내·외부 협의, 공시 지표 및 개선의 정량화를 위한 내부 비즈니스 로직(Business Logic) 개발 등 많은 요인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IT 도입 단계별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활용도 높은 IT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IT 시스템 도입·개선 단계

IT 시스템 도입에는 데이터 수집, 공시 대응 수준, 재무적 영향 평가 시나리오 난이도 등을 고려한 단계적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많은 기업, 또는 IT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ESG 관리 시스템은 필요 데이터의 수작업 업로드와 공시보고서 대응 프로세스 및 자료 증빙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일부 ESG 선도기업은 규제 대응 복잡도 및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관점에서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 기능을 보장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을 시도 중이다. 기업마다 준비 수준은 영역마다 다르므로 각 기능영역별 단계적 도입 전략을 수립한 후 현실적인 목표를 구현해 나아가야만 활용성 높은 IT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 ESG IT 플랫폼 예시 - KPMG “ESG LINC”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Source: 삼정KPMG

“ 시스템 구축 전 ESG 지표 표준화와 연계 데이터를 고려한 PI 및 데이터 정의가 선행되어야 함 ... 공시대응은 다양한 대내외 참여자의 협업이 필수적 ”

IT 시스템 도입 방안

ESG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체 구축, 전문 솔루션, 하이브리드(Hybrid) 구축 등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 현황에 맞는 구축 방안 선택이 필요하다.

자체 구축은 기업의 ESG 도입 목적에 맞춰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ESG 발전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통하여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다. 반면에 구축시간이 오래 걸리며 지속적 통합·개선이 어렵다. 또한 데이터 통합 구조를 설계해야 하므로 시스템 개발의 전문성도 요구된다. 일반적으로는 IT 자회사나 자사 IT 조직, 또는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 조직과의 협업을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전문 솔루션 도입은 ESG 요구 기능을 탑재한 기성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미 많은 테크(Tech) 기업들이 ESG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는데, 도입시간이 비교적 짧고 글로벌 규제에 적합한 시스템 요건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에 특화된 관리 기능을 개발하기 어려우며 기능의 성숙도도 솔루션마다 매우 다르므로 적합한 솔루션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시스템 도입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등 투자측면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ESG 전문 솔루션 도입으로 데이터 허브(Hub), 재무영향 시나리오 검토 등 기술적 구현이 어려운 기능은 사용하되 그 외의 공시 리포트 작성, 포털(Portal), 과제 관리 등 기업이나 산업 특성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영역을 자체 솔루션 혹은 전문 솔루션 도입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솔루션 벤더(Vendor)사의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 제공 수준에 따라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솔루션 성숙도나 시스템 요구가 낮은 상황에서 도입 복잡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SG 정보공시를 위한 IT 시스템 도입 방안

	1안 자체 구축	2안 전문 솔루션 도입	3안 하이브리드형 구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시스템 요건을 직접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포털(Portal)을 포함한 통합 솔루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전문 솔루션 도입 ESG 포털(Portal) 및 데이터 허브(Data Hub)는 직접 구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특성 및 기업 내부 상황에 맞춘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가능 일부 운영 관리 영역은 기존 운영 시스템 보완·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축 시간 최소화 ESG 유관기능 연계성, 통일성 확보 벤더사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업 특성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및 전문 솔루션 핵심 기능 도입을 통한 구축 용이성 확보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축 시간↑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유지 보수 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상황별 비정형·예외 사항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어려움 기존 운영 시스템과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 가능 시스템 사용료 별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시스템 전반의 유기성, 통일성 확보 어려움 시스템 사용료 별도 발생

결언 및 시사점

“
기업들은 기존 재무제표
공시 시점에 맞춰 ...
ESG 공시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량적 내용으로
신뢰성 있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에 직면 ”

ESG 정보공시 의무화 도입의 의미

ESG 경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는 역량에 따라 향후 기업의 지속성장이 좌우되는 시점을 맞이했다. 지난 수년간 기업들은 ESG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ESG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매출, 손익 등과 같은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영 건전성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ESG 경영전략 수립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화 규제가 속속 발표됨에 따라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한번 커다란 변화의 물줄기 앞에 서게 되었다.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화 규제 도입 배경은 탄소 중립과 같이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한 주요 ESG 목표를 적시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드라이브하는 측면이 강하다.

IFRS 재단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법안, 유럽의 ESRS(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와 같은 다양한 글로벌 공시기준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은 각 기준에 맞는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존 재무제표 공시 시점에 맞춰 ESG 공시를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정량적인 내용으로 신뢰성 있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고, 기업들의 ESG 공시 결과는 세계 각국의 정부, 투자자, 고객 등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공시기준 요구사항들은 난이도가 매우 높고 복잡하므로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SG 정보공시 대응의 어려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SEC의 경우, 현재 공개된 법안이 확정될 경우 2023년 또는 2024년부터 기후 공시 의무화가 적용 예정이다. 국내 일부 대기업들도 적용대상이 될 EU의 공시기준인 ESRS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ISSB 기준에 의한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에게는 준비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둘째, ESG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이 까다롭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주요 공시내용이 연결기준 또는 밸류체인(Value Chain)에 기반하고 있다. 해외 법인이나 자회사들의 경우, ESG 관련 조직과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재무영향 분석도 요구 받고 있으므로 기업 대응이 쉽지 않다. 그 동안 정성적으로 평가하던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와 위험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영향을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는 향후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더불어 투자자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질 핵심 정보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기업이 많지 않으므로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 분석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 ESG 정보공시의 다양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응 ··· ESG 정보공시를 위한 조직, 방법론, 프로세스 및 IT 구축 중요 ”

IT 시스템 기반 ESG 정보공시 관리의 필요성

ESG 정보공시의 다양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방법론, 프로세스 및 IT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공시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위한 IT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ESG 정보공시 프로세스 부재로 인하여 공시보고서를 단발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 관리 및 산출을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향후 공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린워싱 이슈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즉, ESG 데이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IT 시스템 기반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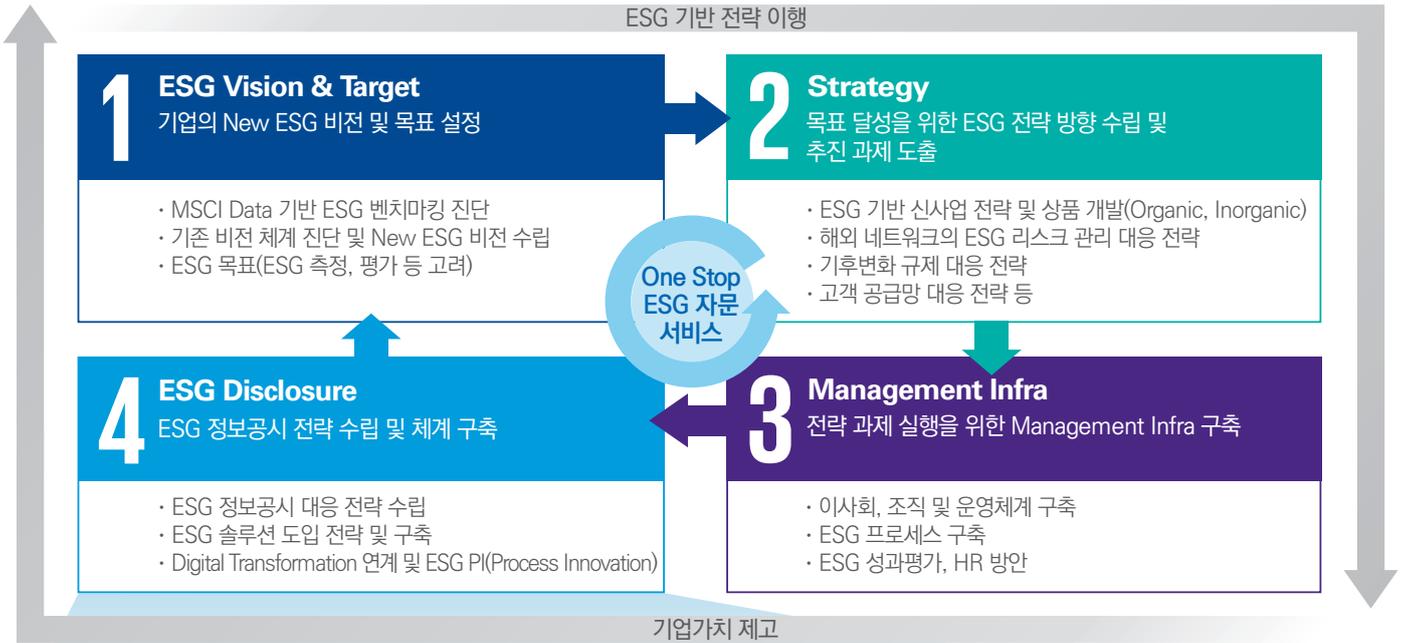
아직 ESG 정보공시 IT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ESG 공시 의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시 적시성, 글로벌 공시표준 적합성, 증빙 신뢰성(Audit-ready), 지속적·실질적 지표 개선의 관점에서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별로 지표 관리, 담당자별 데이터 관리, 보고서 관리, 진도율 등이 실시간으로 관리되도록 ESG 정보공시 대응 방안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연결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해외법인이나 자회사까지 연결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안점을 뒀다 한다. IT 시스템 등 효과적으로 ESG 정보공시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ESG 성과 개선을 위해서 기업이 어떠한 인사이트를 지녀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HOW KPMG CAN HELP

삼정KPMG ESG 비즈니스그룹은 2008년 국내 자문사 최초로 설립되었고, 국내외 선도기업 대상 700여 건의 ESG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ESG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략 컨설팅에서 공시대응은 물론 솔루션 구축을 모두 지원하는 One-Stop ESG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인 ESG Center of Excellence(ESG 전략컨설팅, 공시대응 및 감사, 솔루션 및 Tech 컨설팅 등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ESG 경영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SG 정보공시 서비스 영역	내용
1 공시 대응 전략 수립 및 실행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공시 요구사항 분석 및 기준서 도출(SEC·CSRD·ISSB) · ESG 공시 Gap 분석 · ESG 공시 지표별 시급성 분석, 우선순위화, 이행방안 수립
2 ESG 정보공시 IT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공시 플랫폼 개발 · ESG 데이터 표준화 · IT 인프라 개발(기존 Legacy·ERP 시스템 연계)
3 공시 대응 조직운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공시 운영관련 내부 프로세스 구축 · ESG 공시 실무자, 담당 임원, ESG 컨트롤러, CFO로 이어지는 ESG 공시 운영체계 구축 · ESG 정보공시 KPI 관리
4 저탄소 Biz.& Operation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적인 ESG 공시 의무화 이후, 실질적인 공시 성과 개선을 위한 저탄소 이행 고도화 전략 체계 수립 (예) 탄소중립 전략, RE100, 저탄소 비즈니스 발굴 등)



삼정KPMG는 ESG 플랫폼 “ESG LINC”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결이라는 의미의 Link와 Corporate Sustainability를 결합한 “ESG LINC”는 ESG 정보공시의 각 단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ESG 정보공시 대응 관련 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ontacts

ESG 비즈니스그룹

ESG 전략 자문

이동석
부대표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문상원
상무
T 02-2112-6513
E sangwonmoon@kr.kpmg.com

ESG 리스크 자문

정우철
전무
T 02-2112-3079
E woochuljung@kr.kpmg.com

여준형
상무
T 02-2112-0207
E junhyungyeo@kr.kpmg.com

ESG 정보공시/인증 CoE

김진귀
부대표
T 02-2112-0223
E jinkwikim@kr.kpmg.com

김시우
상무
T 02-2112-0893
E siwookim@kr.kpmg.com

정재욱
상무
T 02-2112-7909
E jjoung@kr.kpmg.com

황정환
상무
T 02-2112-0462
E jeonghwanhwang@kr.kpmg.com

ESG IT 자문

이승근
상무
T 02-2112-0992
E seungkeunlee@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